

경북도, 2023년 청년정책 정부평가 “전국 1위” 쾌거

경북號 청년정책의 우수성과 추진력 인정받아

경북도는 내실 있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국무조정실 주관 '2023년 청년정책 정부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중 도 단위는 경북도가 유일하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정부평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권리 5대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도, 청년 삶 반영도, 사업추진 적극성, 성과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최초 시행 시 전국 시도의 청년정책을 단위사업별로 평가해 우수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도별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해 경북도가 최우수의 영광을 안았다. 경북號 우수 청년정책은 성과 달성은

물론 국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지자체-대학-기업-청년과의 연계 등을 통한 청년정책 효과 극대화, 지역청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 발굴·추진, 추진과정에서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청년을 참여시키는 등 정책의 우수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경북도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유턴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청년유턴일자리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어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국가 사업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해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을 최다 조성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선도적인 청

년정책을 추진해왔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로 올해 청년의 날* 정부 기념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둬 명실공히 대한민국 청년정책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하게 됐다"라며, "도지사로서 매우 영광스럽지만 지역은 여전히 인구소멸의 위험을 안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K-U시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마련해 청년의 전 생애 단계별 지원으로 청년 정주시대로의 대전환을 시도한다. 지자체-대학-기업 그리고 청년이 함께 만들어갈 지방시대를 기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유럽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경기도-유럽 국제 학술회의 개최

경기도는 세종연구소, 베를린자유대와 함께 3일과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 평화적 공존과 번영 모색 : 위기 관리를 위한 한-유럽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학술회의에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이은정 동아시아대학원 원장을 비롯한 니콜라스 스완스트롬(Niklas Swanstrom)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소장, 존 닐슨 라이트(John Nilsson-Wright) 영국 캠브리지 교수, 미하엘 슈타크(Michael Staak) 독일 헬무트 슈미트 대학 교수를 포함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6개국 3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니콜라스 스완스트롬 소장은 ISDP의 합동 설립자이며 갈등관리 및 예방 분야의 전문가이다. 존 닐슨 라이트 교수는 영국 왕립국제문제 연구소(체텀하우스)의 아시아 프로그램 장으로,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 대하여 국제 언론에 주기적으로 논평하고 있다. 미하엘 슈타크 교수는 지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대한민국 및 독일 외무부에서 공동으로 임명된 한반도 통일 관련 고위 자문 그룹 멤버를 역임한 바 있다. 5번째 세션 '유럽-대한민국 간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협력 방안'에서는 윤덕룡 경기도정책혁신위원장(KDI 초빙연구위원)이 평화를 계승, 세대, 환경까지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는 경기도의 '더 큰 평화' 비전을 발표한다. 윤 위원장은 경기도의 평화 정책을 발표하고, 유럽과의 협력과제를 제안한다. 윤 위원장은 유럽이 냉전 시기에 유럽 석탄 철도 공동체(ECSC) 등의 실용적 협력에 나서며 유럽 통합의 계기를 만든 사례에 주목하며, 새로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한국과 유럽 주요국은 국가 규모와 입장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상호 간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깊다"라며,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과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한 유럽의 오랜 경험 공유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위기관리 노하우를 축적하고 다차원적 협력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남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통해 최대 접경지인 경기도의 평화공존 전략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유럽을 비롯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다양하고 창의적 방식의 접근을 통해 단차있는 남북 간 평화 협력의 새로운 물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서울시,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 연임 위촉

오세훈 시장, 30일(금) 위촉장 수여...시장 직속 비상근직으로 임기 연장

서울시는 제4대 서울총괄건축가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명예교수를 연임 위촉했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는 학식과 실무역량을 모두 겸비한 도시·건축전문가로 2021년 7월 제4대 서울총괄건축가로 위촉되어 서울시 공공건축 및 도시공간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노들섬 재조성사업, 감성도시구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그레이드 한강 등 ▲서울 도시품격 향상 및 미래도시를 고려한 도시공간전략 자문, ▲도시건축정책 연구 및 공공건축사업 자문,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건축가 초청 등 건축문화교류 확산을 통한 도시건축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 공간환경의 다양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100년 서울 도시비전 제시 등 주요 추진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연임 결정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100년 서울 도시비전, 노들섬 재조성사업,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대관람차 조성, 그레이드 한강 등이 있다. 이번 연임 위촉에 따라 서울총괄건축가의 임기는 2024.06.30.까지 연장되며,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 및 공간환경사업 전반 총괄 기획·조정 등 시책 사업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4개 특별자치시도, 세종시 상생협력으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균형발전 협력, 특별지방정부 위상 제고 노력

세종시를 비롯한 제주도, 강원도, 전북도 등 특별자치시·도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생협력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와 내년 1월 출범할 전북도는 앞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진정된 지방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지방정부가 갖는 헌법상 지위와 위상 제고에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각 특별자치시도 국정과제 조기 달성과 재정·세제 분야 자율성 확보,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등이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신설도 포함됐다. 협약식 이후에는 자치분권과 상생발전이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정책포럼'이 진행된다. 주제발표시간에는 인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 필요성과 방향'을,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 연구원장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전남도-경남도, 상생발전 공동 협력사업 순항

'상생발전협력회의' 발족으로 연대협력 정례·가속화 기대

전라남도도와 경상남도도가 '상생발전협력회의'를 발족키로 하는 등 지난 4월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 실현을 목표로 체결한 '전남-경남 상생발전협약'의 공동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당시 상생발전협약을 통해 남해안 개발, 우주항공, 이후 두 도는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 사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상생발전협력회의'를 발족해 만남을 정례화하고, 연대와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과제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협력과제 중 눈에 띄는 성과는 '남해안 종합개발 신설 공동 추진'이다. 남해안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김영록 지사가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다. 나머지 협력과제도 상생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협업방제 강화'는 전남과 경남 연접지역인 하동과 광양·구례 간 공동방제 체계를 구축해 재선충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20일과 28일 두 차례 공동방제를 추진했다. 하반기엔 공동방제 협의회를 개최해 추가 공동방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전남과 경남 유망 청년작가가 참여하는 '도립미술관 청년작가 교류 전시'도 7월 중 세부 협의 후 하반기에 두 지역 청년작가가 양측 도립미술관에서 작품 발표를 하고 2024년 상반기엔 도민에게 공개하는 정식 교류 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10월까지 개최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박종배/기자

와 9월 15일부터 열리는 산청세계전통의약문화엑스포의 입장권 교차 할인과 공동마케팅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2024년 경남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 공동협력은 올해 10월 전남대회 사전 공동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이밖에 이순신 장군 순례길 프로젝트, 이순신 축제 연계 개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 등 협력과제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행계획이 곧 도출될 예정이다. 전남과 경남은 조만간 '상생발전협력회의'를 발족하고 만남을 정례화해 연대와 협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상생발전협력회의는 기존 12개 협력과제의 공동 추진뿐만 아니라 추가 신규과제도 발굴·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양 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협력과제 담당 실국장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운영 방식은 7월 중 기획조정실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상생협력 이후 전남과 경남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남해안 관광부터 우주산업까지 두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운항사 폐업 신고로 끊길 위기에 처했던 충남 보령 대천항-외연도 여객선 항로가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며, 섬 주민들이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도는 대천항-호도-녹도-외연도 항로가 다음달 1일자로 국가보조항로로 정식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사업 채산성으로 민간 선사가 여객선 운영을 기피하며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하고,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토록 한 뒤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천항-외연도 항로는 기존 운항사가 유류비 상승과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폐업을 신고하며, 섬 주민들의 발길이 묶일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따라 도와 보령시는 운항 결손금을 전액 보전키로 하며 발길 단절 위기를 막았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도와 보령시가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보조항로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신지방해양수산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번 결실을 맺었다. 국가보조항로 운항 운영은 단독으로 임할에 참여한 신한해운이 맡아 매일 오전·오후 두 차례 대천항을 출발해 호도와 녹도를 거쳐 외

충남도, '단절 위기' 뱃길, 안전하게 잇는다

대천~외연도 '국가보조항로' 지정...정부가 운항 결손액 지원

연도까지 47.2km를 오간다. 도는 이번 국가보조항로 지정으로 외연도, 호도, 녹도 주민과 방문객 등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며 이동권이 크게 향상되고, 각 섬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6.25 참전유공자 예우 소홀, 거주지역 따라 편중 지원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3년, 정전(停戰) 70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가운데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 정책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라면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상북도가 지역 및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울산

(11~14만 원), 세종(15만 원), 경남(7~12만 원), 제주(12~22만 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각각 다른 상황이다. 경북의 참전명예수당은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북 도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유공의 무게감도 달라지게 됨으로써 적게 지급받는 시군의 참전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것이다. 경북이 호국의 고장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대책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의 민간의료기관, 독립의료원 등과 협력하여 의료지원을 강화 하고, 사망시 장례지원, 수당의 유족 승계 등 다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5·18민주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하며 선순위 유족 사망시 자녀 1인까지 유족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지원과 취업시 10%~5%까지 가점을 주고, 의료지원 또한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에 있어서도 지원받고 있다. 사망시 예우에서도 묘비제작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음은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신속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본인에 한해서 지원하며 유족 승계가 되지 않고 사망시 장례지원비도 2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주택 및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등에 대한 지원이나 유족에 대한 교육 취업가점 등이 없다.

배진석 의원은 “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공로의 경중을 논하

려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임을 고려해달라”면서 “나라가 반석에 오를 수 있도록 애써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의 예우를 하고 있는지 지방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와 현실의 어려움을 한번 더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로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6월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지원분과 주관으로 개최된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에 따른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형민 교수는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로 인한 원아감소에 따른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서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로 인한 원아감소에 따른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원아감소에 맞는 어린이집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보육 지원을 새로운 인구 추계와 요구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 탄력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원은 “경기도의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산부인과, 소아과, 어린이집 등 여러 기관에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재정건전성 확보, 어린이집 유형 간 급식비 차등 지원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혜원 센터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와 질적 강화의 균형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부모 교육, 전문성을 고려한 교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법안단체분과위원회 김세희 위원장은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위한 소요 비용이 상당함으로 어린이집 차량 운행기사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재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채널A 신선미 기자님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 수납한도액의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의 질 차이 개선을 위해 수납액 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공립분과위원회 여성인 부위원장님은 “영유아의 발달권과 보호권 보장을 위해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장애 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지원, 장애보육도유미 배치, 조리원과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 권은희 팀장은 “경기도 보육사업 지원의 재정적 현실과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 측면의 어려움을 살펴 지원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성란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있어 균일한 보육 지원은 지속가능한 우리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전남도, 신종 감염병 출현 효과적 대응 머리 맞대

코로나19 전문가 토론회서 대응 점검·개선 방안 논의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왕인실에서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복기하고 신종 감염병 출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 코로나19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질병관리청,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전남대학교병원, 순천·강진·목포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 주최, 전남감염병관리지원단 주관으로 이뤄졌

다. 발제를 맡은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전남도가 코로나19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기반으로 다른 시도보다 사망을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교수는 향후 팬데믹 대비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능력 획기적 개선 ▲거리두기와 보상체계 사전 준비와 법적 체계 정비 ▲평상시 의료체계 자체를 팬데믹에서도 활용되는 구조로 준비 등을 제안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교수인 신민호 전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선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은창 전남도지사회장, 김어진 화산전남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대연 순천의료원장, 허흥심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지승규 대한요양병원협회 전남회장

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전남도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과제, 신종감염병 대응 정책 제언, 민간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및 과제, 전남 위중증병상 운영 경험 및 문제점,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원 역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문제점, 요양병원에서 신종감염병 대응 당면 과제 등을 논의했다.

신민호 단장은 “현대사회는 언제든 신종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이슈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도출해, 전남도가 감염병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희생·헌신했던 의료진과 공직자 등 5천 명에게 도지사 감사 서한문을 전달했으며, 7월에는 관계자 위로·격려 행사와 유공자 표창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인천시의회, 지역 의사 인력 확보 절실... 시와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심각한 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의회 별관 3층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지역 의사 확보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과 박귀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문복호 소속 의원,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인천지역 의사 확보 기반 조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 앞서 김중득 위원장은 “인천 지역 의사 확보 관련 문제점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앞으로 공공의료 관련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유원섭 센터장

은 국가의 필수 의료 의사 인력 양성 정책 동향을 소개하며, 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또 박귀화 교수는 인천형 예비 의료인력 지역사회 실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인천시-인천의료원-과대학 간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박판순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의사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남/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민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박유석 | 임석경 | 청소년책임보도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 등록일 2013-07-12 |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 경 지 부: 내선 (112) | 문 화 매 일 (116)
 사 회 부: 내선 (113) | 부 통 산 부: 내선 (117)
 경 계 부: 내선 (114) |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키야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고소득, 건강한 가임 여성에게도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서울시,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제319회 정례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에 “무차별적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출산장려 예산을 낭용하여 꼭 필요한 다른 정책 시행을 막는 아마추어식 행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들여 이런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민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김경 의원은 “서울시가 급변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의 출산 연령이 점차 상승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소득수준 기준을 폐지하여 지불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난임의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꼭 필요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방식도 아닌 이른

바 ‘무차별적’ 지원 방식은 꼭 필요한 출산지원 정책 시행을 막는 ‘아마추어식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난임부부 시술비용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2023년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에만 지급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해당 소득수준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출산 해소 및 보육 지원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더욱 전문성을 갖고 정책 다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며 정책 개발에 임해야 한다.

김경 의원은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양육근로자 처우개선’ 등 더욱 많은 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추경을 편성했다.”라며 “출산율 최하위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기획하는데 철저한 분석부터 설계, 개발, 실행, 평가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민선5기, 임종식 경북교육감 취임1주년 기자 간담회



지난 달 28일 10시 50분, 경북교육청 응비관에서 경북지역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 되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5기 제 18대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의 경북교육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언론인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임종식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경북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홍보로 경북교육을 널리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운을 떼면서 세계교육 표준을 위한 경북교육 정책을 하나하나 발표했다.

이에 취재진은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경북교육이 나아갈 추진방향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경북교육청의 주요 성과 중 먼저 2022년 주요 성과는 ▲전국기능경기대회 5년 연속 학생부 전국 1위 ▲경북 직업계고 3년 연속 전국 최고 취업률 ▲교육기간 최초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행정부문 행안부장관상 ▲기록관리 기관평가 2회 연속 최고 'A'등급 ▲감사활동심사 최고 'A'등급 ▲학교급식 우수사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 우수학교 전국 15교중 3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부 평가 최우수 ▲비상대비업무 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업혁신 사례 연구대회 전국 최고 전국 최다 입상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 우수기관 ▲제103회 전국체전 역대 최고 성적 ▲교육정보화연구대회 16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3년에는 ▲2023학년도 고입전형 분석결과 타 시도 유입 학생 4.7배 (1,393명),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선정 (41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선정, ▲전국 최초 한국어 교육센터 개관, ▲전국 최초 인공 지능 감사시스템 (경북교육청 제 1호 특허),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대 최고 (금48, 은42, 동48), ▲경북교육청 구미발명교육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선정 2년 연속 전국 최고 발명 교육센터 선정, ▲전국 최초 모든 학교에 119비상벨 설치 사업 시행, ▲6.25전쟁 정전

70주년, 평화로 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 추진(4권역), ▲학교지원 종합자료실 130만부 돌파 등 지난 1년간 취임 이후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청 향후 추진 방향은 세계교육의 표준(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경북교육청이 세계교육을 앞장서 끌거나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실현 의미)인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에 두고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혁신 추진에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단계별 목표를 설정해 1단계(2023년) 기반 조성/발굴, 2단계(2024년) 도입/시범운영, 3단계(2025년) 확산/정착, 4단계(2026년) 성숙단계에 통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할 계획으로 이 세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가치는 신뢰·융합·학습으로 추진 전략은 적극 이행을 위해 신규 교육정책 적극 발굴과 민-관-산-학의 협력 시스템 운영하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현장 중심의 선택과 집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며, 위험관리를 위해 학생안전 관리 우선과 애지일(Agile) 방법론을 도입해 나갈 전략이다.

이 세계교육 표준을 위한 경북교육 정책은 전문감시단 운영, 온라인 국제 교육과정 운영,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경제교육, 학생건강 체력향상을 위한 통합신체활동 지원, 사이버도학교 세계화 사업, 인공지능 활용 플랫폼, 천년의 수도학교 국제교류 네트워크 운영, 글로벌 교육협력 전문기관 활용교류 강화,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경북국제교육포럼, SW-AL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 글로벌 경북교육 누리집 운영, 다문화향 수련과정으로 화랑정신 세계화, 경북형 과학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다문화 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스마트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운영 사업, 도서관 인문회! 선비정신의 세계화를 이끈다, 즐거운·감동·깨달음을 찾는 다문화 가족 해양안전체험, 경북 학생 미디어아트

컨버전스관 글로벌화 사업의 22개 사업중 11개 주요 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온라인 국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학교 운영모형을 개발 및 보급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 국제 교육과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경제교육 추진은 실생활 연계 교육을 통한 합리적 경제생활 습관/경제적 사고력 함양과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소양 양성을 위해 경제교육 교수, 학습자료 보급, 미래에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운영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경제교육 운영을 추진한다.

▲사이버도학교 세계화 사업 추진은 독도 바로 알기를 통해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초·중·고급과정에 영문 사이버 독도 학교 운영, 맞춤형 학습 운영하고 독도 교육 올림픽을 확산, 사이버독도학교 외국인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사업이다.

▲학생 해외 봉사활동 추진은 타 국가의 사람과 문화를 이해·존중하는 글로벌 리더의 역량 함양과 경북교육의 가치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나눔과 배려 실천으로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고자 자기 성장과 인류에 함양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활용 플랫폼 'G-AI랩' 구축은 경북교육 구성원의 인공지능 이해도 및 활용 능력 제고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 학습 및 업무 개발, 인공지능 기반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통한 경북교육력을 제고 하기 위해 추진한다.

▲천년수도학교 국제교류 네트워크 운영은 천년고도 경부를 품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육 교류 활성화와 세계 천년수도 소재 학교와의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증진 및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내외 천년수도 소재 학교 간 다방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 교육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기 위해 경북 직업계고 충원을 제고/지역 산업 노동 인력 제공과 우수 유학생 유치/채용,

정착을 통한 지방 소멸 문제 해소, 그리고 글로벌 교육과정 수출을 통한 경북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국제사화에 공헌한다.

▲교육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ICT/원격교육 선구국가로서 교류협력국에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ICT활용 교육 노하우 전수를 통한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경북국제교육포럼 개최는 경북교육 중심 국내외 교육전문가와 교육 현장 구성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교육 문제 해결 초석을 마련하고 정책 연구 및 학술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해 경북형 미래교육 모델로 경북교육의 세계교육 표준화 실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SW-AI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강화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해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구글의 교육용 서비스를 활용한 경북교육의 혁신성을 홍보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경북 학생미디어아트 컨버전스관 글로벌화 사업 추진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미래형아트 전문가 과정 개설로 컨버전스형 아티스트 발굴과 예술과 과학기술이 만나는 신개념 디지털 공간 구축으로 창의적 경험 사유와 다양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융복합적 사고 및 예술적 원천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이처럼 세계교육의 표준은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이 돼 경북교육청이 세계교육을 앞장서서 이끌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임종식교육감만이 추진할 수 있는 미래 전략적인 교육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임종식교육감은 지난 1년간 성과표와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한 후, 이어진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시 어느것 하나 힘없이 조목조목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왜 경북교육감이 돼야 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경북교육의 미래는 더욱 탄탄대로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 확신을 가지면서 이 한마디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윤근수/기자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그의 박학다식하고 막힘없이 거침없는 경북교육에 대한 열정의 모습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계일까?」



경기도, 상반기 '기발한기업현장맞손토크' 완료. 현장 소통으로 기업애로 적극 해결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권역별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와 '경제단체 대표 간담회'가 중소기업 현장 소통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해결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는 경기도가 직접 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영태영 경제부지사가 주재해왔다. '기발한'은 '기업과 기회가 발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7일 양주에서 북부권 맞손토크를 시작으로 3월 31일 동

부권(광주), 4월 25일 남부권(안성), 5월 18일 서부권(시흥) 등 4회의 맞손토크를 실시했으며 5월 9일에는 수원에서 경제단체 대표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관련부서장의 답변 형태로 기존의 형식적인 틀을 벗어난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여주었다.

도는 총 5회 현장에서 총 78건의 기업애로 안건을 발굴했으며, 16개 실·국과 33개 소관부서가 협업해 79%(62건)의 긍정적인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논의 및 기업 현장 의견 청취

주요 해결 사례를 보면, 연천의 A기업은 맞손토크에서 공장에 진출입하는 대형차의 회전반경이 커 중앙분리대에 걸린다며 번속 차로 차량 통행을 위한 분리대 길이 축소를 건의했다. 도는 이를 뒤 직접 현장에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고 연천군 관련 부서와 협의한 뒤 축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여주시의 한 기업인은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이에 부담을 느껴 지원받기가 어렵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도는 건의 사항을 수렴해 노동자 주소와 무관하게 원거리 통근자를 위한 원룸 계약 시 기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규직원 여부와 실거주 확인 등으로 대체하는 등 정책 방향을 유연하게 조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오랜 기간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이어 제2회 맞손토크에서도 건의됐던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 겸업

제한요건 완화 요청' 안건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까지 할 수 있도록 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장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경기도와 시·군이 직접 나서 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기업애로를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느껴서 기업 하는 사람으로서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있어서 기업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만족감을 보였다.

영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상반기 맞손토크 성과를 기업과 시군에 공유하고, 현장의 뜨거운 반응에 호응해 하반기에도 기업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업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2023 용인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 개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대한민국 최고 육상선수 350명 참가

용인특례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2023 용인 KTFL 한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고 경기도육상연맹과 용인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올해 전라북도 익산과 경상북도 예천, 전라남도 나주에서 열린 'KTFL 시리즈 대회'와 '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상위권에 올라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가 참여한다.

는 육상종목 선수 350여명이 경쟁한다.

'문체부장관기 제44회 전국시도대학경기대회'와 '제104회 전국 체육대회 경기도 선발전'도 함께 치러져 학생선수 600여명도 참가한다.

21일부터 23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유튜브 아이탑채널)을 통해 모든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육상선수들이 모이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육상종목과 용인특례시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00여명이 넘는 선수가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육상선수들이 모이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육상종목과 용인특례시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00여명이 넘는 선수가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화성시, 향남~평택지제역간 시내버스 7월부터 개통

화성시가 30일 7월부터 운행개시되는 향남신도시와 평택지제역 간 시내버스 H123번 개통식을 개최했다.

향남환승터미널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 50명이 참석했다.

H123 노선은 향남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향남역~향남제약공단~양감면~삼성전자평택캠퍼스를 거쳐 평택지제역을 경유한다.

이번 버스노선 신설을 통해 향남읍, 양감면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시현/기자



또한,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향남역(서해선)과 평택지제역(고속철도, 1호선)의 연계로 광역교통 환승체계가 가능해져, 철도 수혜지역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향남역과 지제역 연결로 화성 서부지역 교통편의 개선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새빛톡톡' 7월에는 마일리지 2배 적립

7월 활동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8월에 추가 적립

수원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새빛톡톡'에서 활동하면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된다. 수원시는 새빛톡톡 정식 운영을 기념해 7월 한 달 동안 마일리지를 두 배로 주는 '마일리지 더블 적립이벤트'를 연다.

7월 3~21일에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위한 새빛톡톡 시민 정책제안 집중 공모를 연다.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를 운용하는데, 7월 1~31일에는 마일리지 두 배로 적립된다. 7월에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8월에 추가 적립된다.

공모 주제는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이다. ▲탄탄한 경제(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한 생활(지속가능한 환경, 안전 도시) ▲따뜻한 돌봄(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돌봄 도시) ▲혁신 행정(시민과의 소통 확대, 시정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새빛톡톡 회원 가입 500점(최초 1회), 다른 사람에게 가입 추천 100점, 맞춤정보 설정 500점(최초 1회), 로그인 50점(1일 1회), '제안토론' 등록 1000점·댓글 작성 100점(1일 1회)·게시글 공감 50점, 설문·투표 참여 100점 등 마일리지 적립된다.

수원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새빛톡톡' 앱, 홈페이지 신청접속 게시판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적립 한도는 한 달에 5000점이고, 분기당 최대 1만 점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새빛톡톡 마이페이지 →마일리지 메뉴에서 지급전환 버튼을 클릭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새빛톡톡' 앱, 홈페이지 신청접속 게시판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수원시 시민참여플랫폼의 명칭'을 맞는 출시 이벤트도 연다. 3일부터 16일까지 '실문투표' 게시판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제안토론 게시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 검토한 후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행한다.

'신청·접수'에서는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비롯해 수원시가 주관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서해선(대곡~소사) 개통 첫날 시민들과 함께 열차 탑승

대곡, 김포공항 환승 편의 점검, 8월 일산역 연장 개통 준비



수도권 서부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서해선(대곡~소사) 7월 1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개통 첫날 이동환 고양시장장은 고양시민들과 함께 직접 대곡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서해선 열차를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성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열차 안에서 시민들과 그동안 서울까지 출퇴근 이용 불편,

서해선 개통으로 이동시간 단축과 향후 철도망 확충의 바람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 시장은 서해선,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대곡역의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환승시설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고 환승동선을 줄이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했

다. 또한,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이동하면서, 환승이용시설, 게이트, 플랫폼 등을 직접 이용하고 살펴봤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주요사업인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추진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용역을 내실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GTX-A 노선, 고양은평선, 서해선 일산역 연장을 비롯해 향후 계획중인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등 광역철도 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고양시에서 서울 주요 도심까지 출퇴근 시간 30분대 진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8월에는 서해선이 일산역까지 차질없이 연장개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출퇴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도로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개통한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은 대곡-능곡-김포공항-원종-부천종합운동장-소사 총 6개 역, 18.3km를 연결하는 복선전철이다. 기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연장하여 고양, 서울, 부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잇는 노선이다.

대곡~김포공항 이동시간은 기존 40분에서 9분으로 단축되고, 대곡~소사구간은 기존 67분에서 21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김포공항에서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포드라인 환승이 가능해진다. 배차간격은 출·퇴근시간대 12분, 그 외 시간은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한영기/기자

수원특례시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7월 마일리지x2**

참여 기간: 2023. 7월 1일(토)~ 7월 31일(월) *연말간

참여 방법: 1. 새빛톡톡 접속 후 로그인 2. 정책제안, 설문투표 등 시정참여 활동

적립방법 7월에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8월에 한 번 더 적립

최초 회원가입	로그인 (1일 1회)	제안글 작성·승인	댓글 공감
500점	50점	1,000점	150점

8월에 한번 더 적립!!

새빛톡톡 마일리지 1만점을 수원페이 1만원으로 신청가능해요. *다자재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새빛톡톡 App

6일, '인천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성화 오픈이노베이션' 개최



인공지능(AI) 활용 SW융복합 스타트업 성장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는 오는 6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성화 오픈이노베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트렌드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바탕이 될 초거대 인공지능(AI)은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챗GPT'가 대표적인

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논문 작성, 번역, 작사·작곡,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AI와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안에서 초거대 인

공지능(AI) 핵심기술 대한 이해와 활용을 통해 인천의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혁신기술 기업과 인천의 소프트웨어(SW) 융·복합 스타트업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유태준 마음AI 대표, 이수정 이포넷 대표, 이태희 더매트릭스의 대표가 초거대 인공지능(AI) 핵심기술 전략 및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2023 인천 라이징스타 킥오프 데이(Kick-off DAY)'를 개최해, 지난 4월 인천의 소프트웨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20개 사가 자사의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태준 '마음AI'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초거대 언어모델을 경량화한 기업용 언어모델을 소개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화를 높인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이수정 이포넷 대표는 '인공지능(AI) 기계 번역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다. 글

로벌 시대에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번역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번역 서비스' 모델을 소개하고, 스타트업들의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강연한다.

이태희 더 매트릭스 대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사업화'를 주제로 자사의 '인공지능(AI) 도면 물량 산출 솔루션' 및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제품 불량 검사기' 등의 제반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서도 강연한다.

손혜영 시 데이터산업과장은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급격한 전환기에 돌입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심화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최될 오픈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기술 변화를 공유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기업 경쟁력이 강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안양시, '소득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오는 7월부터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만 44세 이하 여성 기준 최대 110만원까지

안양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난임부부는 증가하고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여성 기준)로, 사실혼도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기준과 동일하게 만 44세 이하 여성을 기준으로 시술 1회당 신선배아 11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5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30만원(최대 5회)이다.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시술 1회당 신선

배아 9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4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20만원(최대 5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양시에서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수는 207명이다. 전체 출생아수(3277명)의 7.2%에 달한다.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체외수정(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1062건, 인공수정 208건에 달한다.

신유용/기자

제9대 부천시의회 개원 1주년 "다시 초심으로"

열린 의정활동과 현장 중심 의사결정으로 시민의 목소리 성실히 대변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라는 의정목표로 출범한 제9대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고 입성한 제9대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여러 현장을 누비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제9대 부천시의회 개원 1년... 10회 회기 운영하며 191건의 안건 처리

부천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임시회 7회와 정례회 3회 등 총 10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11건(의원 발의 48건), 예산-결산안 11건, 의견-동의안 12건, 기타 57건 등 총 191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예산이 적체적소에 투입되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여야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뜻을 모으며 협치의 정신을 보여줬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채택해 부천시의회가 하나 된 의견을 대내외에 표명함으로써 집행기관에 힘을 보탰다.

또한, 지난 2월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자, 여야 의원들은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고 신속히 의결해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시민의 삶을 촘촘히 챙겼다.

◆ 상임위원회 생방송, 행정사무감사와 시장질문으로 의원들의 책임감 높이고, 집행기관 향한 견제와 감시도 '특독'

제9대 의회에 들어서 본격 실시한 상임위원회 생방송은 의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회의의 질을 높였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됨으로써 의원들은 질문과 발언을 신중히 하고, 공직자들은 성실하고 꼼꼼한 답변을 준비해 안건을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장질문도 활발히 펼쳐 다양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지난해 실시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860건의 시장·개선 사항을 발굴해 집행기관을 향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특독히 했다.

또한, 3회의 시장질문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적시에 지적하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며 상당 부분이 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 현장방문으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 경청, 시장 운영 방향 제시
현장중심 생활의회를 표방한 의회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부천아트센터,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오정 빛물 펌프장 등 13회에 걸쳐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부서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에도 머리를 맞댔다. 부천시의 높은 인구밀도와 노후화된 원도심은 생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인구 유출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의회는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체육시설 확충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운동장,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 개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청,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주문하는 등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각계각층 시민과의 소통과 의원 역량 제고로 민생현안 신속 대응 목표

부천시의회는 앞으로의 3년 또한 각계각층 시민과의 소통을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으로 민생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던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재개해 미래 유권자를 만난다. 의정자료관과 분회 의장 등 의회 시설 견학부터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과 모의의회 체험까지,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소년에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경험하는 기회가, 지역구 의원에게는 미래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원의 역량 제고와 윤리적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역량을 지원해 최신 흐름에 맞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최성운 의장 '초심의 각오로 돌아가 시민의 뜻 되새길 것' 강조

최성운 의장은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초심의 각오로 돌아가 시민의 뜻을 되새기고, 의회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를 향한 신뢰를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존이동(存異求同)'의 자세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함께 지켜야 하는 원칙이나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며 "남은 기간,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원칙과 소통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성남시 미혼남녀 만남 '솔로몬의 선택' 호응 속 첫 운영

30%인 15쌍 커플 매칭 성사...신 시장 "귀한 만남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성남시는 미혼남녀 만남 자리인 '솔로몬(SOLOMON)의 선택' 첫 행사가 7월 2일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8시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에서 열린 행사에는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39세(1997~1985년생) 직장인 미혼남녀 100명(남·여 각 50명)이 참석했다.

신청자 색도로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행사장에 나온 이들이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국내 1호' 이명길 연애 코치가 연애에 관한 코칭을 하고, 성격 유형 검사(MBTI) 커플 레크리에이션, 와인 파티, 1대 1 대화, 식사 시간, 본인 어필 타임을 마련했다.

3지방까지 커플을 이어주는 썸매칭도 진행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이날 50쌍 중 30%인 15쌍 커플은 매칭이 성사됐다. 이들은 추후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로 해 새로운 인연 탄

생을 예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솔로몬의 선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모님들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약 1200명의 참가 신청 결과를 보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만남을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 성남에서 계속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추진한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는 신청자들이 몰리며 대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차(5.22~6.14), 2차(5.22~6.21) 두 차례에 걸쳐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0명 모집에 남자 802명, 여자 386명 등 모두 1188명이 신청했다.

시는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추첨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했다.

솔로몬의 선택 2차 행사는 오는 7월 9일 그래비티 호텔 서울 판교(분당

구 백현동)에서 열린다.

시는 두 차례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향후 행사 규모나 진행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이상욱/기자



안산시, 4일부터 경기도 최초 '이동케어 톡버스' 운행 개시

현대차·안전생활실천연합 사회공헌사업에 '대부도' 선정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교통이 불편한 대부도 지역 어르신 등 이동약자를 위한 신고통 수단인 '이동케어 톡버스'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대부문화센터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이민국 시장을 비롯해 지역 도·시의원,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상임이사, 김수영 현대차 상무, 이정술 안실련 총장, 민총기(췌)경원여객 대표, 이강세 대부도노인회장 등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장재훈 이동석)와 안전생활실천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 3인)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교통 취약지역인 대부도에 이동약자를 위한 차량과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고, 시와 경기교통공사는 행정지원을 하며, 해당 지역 DRT 운송사업자인 (췌)경원여객에서 차량을 운행한다.

운행개시는 4일부터다. 톡버스(DRT) 이동케어 서비스를 위해 현대 쏘라티 차량(7인승, 장애인 휠체어 장착) 2대를 운영하며, 운행시간은 기존 대부도 톡버

스와 동일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시는 경기교통공사와 함께 이용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65세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약자이다.

요금은 현재 시내버스 비용과 동일한 1,450원으로 수도권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특히, 대부동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존 무료교통카드(g-pass)로 연간 16만원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민국 안산시장은 "이동케어 도입으로 대부도에 총 6대의 톡버스가 운행돼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이동케어 차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부도 인구 9,22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3,041명으로 33%가 교통약자임을 고려해 어르신과 임산부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제공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부/기자



경북도, 문화누리카드 '여름휴가 기획행사' 진행

올 여름 경북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하고 소금도 받자!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3년 경북문화누리 여름휴가 기획행사를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행사는 경북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의 이용률을 높이고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의 이용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국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간 중 경북도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을 인증한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소금 1kg이 지급된다.

참여방법은 경북문화누리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카드이용 인증(문자 또는 누리집 캡처), 구입물품사진, 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획행사 결과는 8월 29일 경북문화재단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바우처 카드다.

문화바우처 카드는 대상자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숙박, 여행, 체육활동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며 11월 30일까지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카드 사용은 12월 31일까지다.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예산 대비 이용률)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중앙부서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평가에서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경북도를 포함한 6개 광역지자체만 지표를 달성해 경북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소중한 재원으로 지원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이 이번 기획행사 기간 동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생활에 시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문화재단 문예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치매보듬마을 운영위원회'설명회 개최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안덕면 문거리, 파천면 신기리 두 마을을 치매보듬마을로 지정했다.

치매보듬마을 주민들은 각종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치매선도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에서 살아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안덕면 문거리, 파천면 신기리 두 마을을 치매보듬마을로 지정했다.

치매보듬마을 주민들은 각종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치매선도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에서 살아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호우피해 상황 및 복구 지원 점검 회의' 열고 수해피해 조속 복구 나서

봉화군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강우로 인해 관내 곳곳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박현국 봉화군수 주재로 지난달 30일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 대책을 점검했다.

점검회의에서 박현국 봉화군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도로, 상수도 전기 등 편의

시설에 대해 우선적인 응급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지시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3년 삼성서울병원 무료진료 실시



영양군은 지난 7월 1일 영양군민회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윤희 교수를 비롯한 7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삼성서울병원 무료진료가 3년만에 다시 재개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진료에서는 8개 항목의 검사 및 12개 과목의 전문 진료 후 바로 투약까지 이루어져 대형병원 진료 시 여러 번 내원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총 400여명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에 맞춘 개별 재활 운동 교육 및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검사 또는 수술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건강상태를 안내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울러 진료 대기 중인 주민들에게 유명 교수진의 건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관내 영양여고 학생들에게 진로방향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꿈 이:룸]을 진행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인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무료진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민선 8기 1주년 권기창 시장 '안동 대전환 함께 만드는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이야기

권기창 안동시장이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도전과 혁신의 힘찬 새 발걸음을 내디딘다.

지난 민선 8기 1년 동안 안동시는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 등재 최초 도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건립 최종 후보지 선정 등 시민 숙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계획이다.

'더 높이 더 멀리' 새롭게 조직개편 단행

안동시는 7월 중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미래적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조직으로 바꾸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간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부서 신설, 1,0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분야 개편, 시민 편의 증진 'ONE-STOP 서비스'를 위한 종합허가과 신설,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맑은물사업본부 설치,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 통합 등 역점사업 완수를 위해 새로운 포석을 짰다.

권기창 시장은 "전 직원이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안동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마다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달라"라며 "지속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청년들로 들쭉거리는 안동을 만들 수 있도록 1,500여 공무원이 전진 또 전진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안동시 최대 현안은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

민선 8기 2년 차 안동시의 최대 현안은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다. 안동과 예천이 함께 힘을 모아 경북 신도성을 유지했듯, 양 도시가 상생발전하고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다시 한번 역량을 모아 나간다. 양 도시 간 행정 통합을 위한 주민 공론을 활발히 진행해 시·군민의 뜻에 따라 통합을 위한 결론을 이끌 계획이다.

우선, 안동시는 예천군과 맞손을 잡고 지난 5월 도청 신도시의 문제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협약식'을 개최하며 상생의 교류를 시작했다.

안동댐 인근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의 수자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 재미와 감동이 있는 역동적인 콘텐츠를 입혀 새로운 체류형 관광자원을 조성해나간다.

안동댐 진입로 빛터널, 월영교 인근 상설 수상공예장, 댐사면 대형미디어 파사드 등을 조성해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리나 리조트, 유흥 시설, 수상호텔, 경비행기 등으로 관광객들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양선 폐선구간과 구역사부지 '핫플레이스' 조성

중양선 폐선구간과 구역사부지를 안동의 핫플레이스로 조성한다. 구역사부지에 키즈테마파크와 스포테마파크, 야외물놀이장 등 체류형 복합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고 남북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도심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양선 폐선구간 35.1Km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간이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로 테마역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복합문화레포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이야기

안동시는 경북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축으로 지역경제 100년 대도약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적극 대응하며, 국내 유수기업 유치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이룰 기획발전특구 유치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이에 더해, 경북북부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유치, 지역 인재 육성을 지역

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 교육자 유특구 유치에도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도청 소재지 안동의 잠재력을 깨워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는 물론, 글로벌 백신 바이오 허브 도시로 부상해 시 승격 60주년을 원년으로 미래 100년 안동 발전의 대전환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은 3일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향후 시정의 비전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의성군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농림식품부와 지자체 관계자, 스마트농업 관련 농기계, 스마트 시설, 로봇, 데이터처리, 통신망 구축 등 관련 전문가와 관수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한국농어촌공사 등 25여 명이 참석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245억 원(국비 167억, 지방비 78억)이 투입돼 사곡면 오상을 일대 82ha 규모의 한지형 마을 재배단지에서 스마트 관수시스템과 스마트 농기계, 생육예측정보시스템 등을 5G 통신망과 연계한 스마트농업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는 노동 집약적·관행농업 위주의 노지 재배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영농단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12월 공모신청 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좀 더 구체화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문가가 제시하는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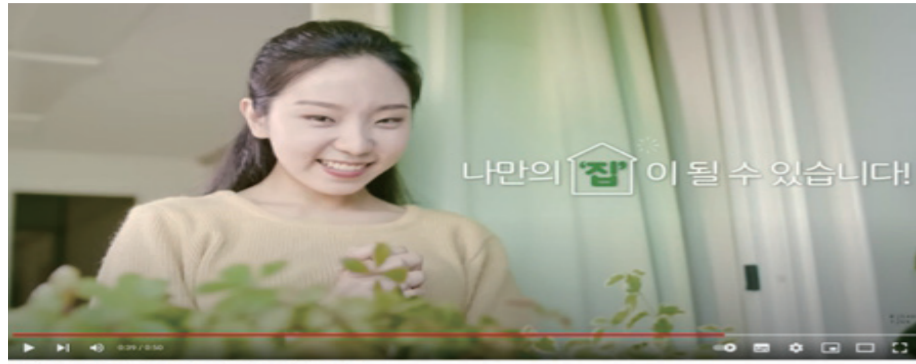
김주수 의성군수는 "스마트농업은 우리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이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군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스마트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의성군이 국내 스마트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예방캠페인 실시

부산시, 청년·사회초년생의 전세피해 예방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인식



부산시는 청년·사회초년생의 전세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방송캠페인과 교육 동영상 홍보를 오늘(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홍보 캠페인은 최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청년·사회초년생의 전세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부동산거래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홍보 영상은 42초 분량의 부동산 안심거래를 위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방송 캠페인' 영상과 7분 30초 분량의 모션그래픽으로 제작된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주요 영상 내용으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계약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다. 방송캠페인 광고 영상은 오늘(3일)부터 지역방송 매체를 통해 방송으로 접할 수 있으며 교육 동영상은 공공기관 홍보, 청년 대상 외부 행사 또는 관내 대학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고 영상 및 교육 동영상은 부산시 공식 유튜브 '부산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종진/기자

영주시, 폭우에 따른 농작물 사후관리 철저 당부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및 축사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농작물의 관리 대책으로는 벼의 경우 침·관수된 논은 잎갈이 물 위로 바를 수 있도록 물 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양극과 오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 물이 빠진 후에는 뿌리 활력 증진을 위해 새물로 걸러대기를 하고 도열병 및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 병해충 방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강우를 동반하지 않은 강풍이 지속될 경우 백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벼가 충분히 젖도록 물을 뿌려줘야 한다. 발작물은 배수로로 깊게 조성해 습해를 예방하고 고추와 같이 쓰러짐에 약한 작물은 지주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침수된 토양 배수로 정비로 신속히 물을 빼고 역병 등 병해충 긴급 방제를 하고, 쓰러진 작물은 빨리 일으켜 세워야 한다. 상처 입은 과실은 빨리 제거해 다음 과실의 여물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육이 불량한 작물은 요소 0.2%액이나 4중 복합비료를 5~7일 간격으로 2~3회 엽면 살포하면 생육을 회복해주는 것이 좋다. 윤근수/기자

과수는 흙이 씻겨나가 노출된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흙을 덮어주고 유실되거나 매몰된 곳을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 토사가 쌓인 과원은 토사를 빨리 제거하고 유기물이 많이 쌓인 과원은 시비량을 줄여야 한다. 또, 낙과된 과실과 유입된 흙을 제거해 과원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검무늬썩음병, 점무늬낙엽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피해가 심할 경우 수세 회복을 위해 요소 0.3~0.4%액 또는 4중 복합비료를 엽면 시비해야 한다. 약용작물은 장기 침수 시 뿌리활력 저하로 습해 및 토양 전염성병(뿌리썩음병, 시들음병 등) 이 발생이 많고 탄저병, 점무늬병 등 지상부의 병해 발생이 우려된다. 토양이 유실된 곳은 비료 성분이 용탈되기 때문에 물이 빠진 후 웃거름(추비)을 사용한다. 침수된 포장엔 잎이 묻은 흙 양극을 씻어주고, 요소, 제4중 복합비료 등을 5일 간격으로 2~3회 엽면 시비하고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남기욱 기술지원과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기술지도도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출범 10개월 대구행복진흥원...각국 대표단 벤치마킹 발길

잠비아 NGO대표단 및 태국 콘컨대학 총장 및 관계자 30명 방문

"행복진흥원 평생교육 플랫폼과 시민대학 운영 방식을 저희 나라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듣고 싶은 강의를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최근 잠비아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대표단과 태국 콘컨대학 관계자들이 출범 9개월째를 맞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원봉사서비스센터를 찾아 임지를 지켜봤다. 이들 대표단은 행복진흥원의 사회서비스 통합 플랫폼과 평생교육 운영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자국 적용을 위한 향후 협력 등 관계 증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행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아프리카 잠비아 NGO 대표단 등 5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행복진흥원의 평생교육 시스템과 시민대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진흥원 내 조성된 강의장 이곳 저곳을 직접 방문해 시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함께 운영 방법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잠비아 NGO대표단을 이끈 딜런(Dylan)씨는 "잠비아의 경우 한국의 70~80년대 경제수준과 비슷하지만 국민들이 근면하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국가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지켜보았지만 시민 오픈강좌를 '체형 중심형', '취미형', '전문형' 등 3단계로 분류해 운영하는 방식은 처음인 것 같다"며 호평했다. 이어 29일에는 팔라팻 라차폰 부총장, 순티바라콘 공학부 학장, 관차녹 임태이 학술임상연구소장 등 교수단으로 구성된 태국 콘컨대학 관계자들이 행복진흥원을 찾았다. 태국 북동부에 소재한 콘컨대는 연구 중심 종합대학으로 세계 수준의 열대성 질병 연구를 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행복진흥원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행복진흥원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을 시연하고 스키초학력(기초한글, 다문화한글, 학력보완) △유아/청소년(유아, 어린이, 청소년) △건강/교

양(상담 심리, 건강, 요리, 인문교양) △취미/예술(공연, 레저, 미술, 악기) △IT/외국어 △자격증/취업(자격증, 취업, 창업과정, 직무역량) 등 6개 카테고리에 등록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강의를 살펴보면 질문을 이어갔다. 행복진흥원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향후 콘컨 대학에 접목 가능한 평생학습 플랫폼 공동 기획 및 운영 방식 노하우 전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순천 행복진흥원 총대원장은 "최근 국내외 기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행복진흥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통합기관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6백여명의 임직원과 체감 가능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함께 강도 높은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양(상담 심리, 건강, 요리, 인문교양) △취미/예술(공연, 레저, 미술, 악기) △IT/외국어 △자격증/취업(자격증, 취업, 창업과정, 직무역량) 등 6개 카테고리에 등록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강의를 살펴보면 질문을 이어갔다. 행복진흥원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향후 콘컨 대학에 접목 가능한 평생학습 플랫폼 공동 기획 및 운영 방식 노하우 전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순천 행복진흥원 총대원장은 "최근 국내외 기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행복진흥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통합기관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6백여명의 임직원과 체감 가능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함께 강도 높은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김장호 구미시장, 로봇이 동행한 2년차 첫 출근

2022년 7월 1일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범한 구미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숲 없이 달려 민선8기 1주년을 맞이했다. 김장호 시장은 출근길 시청 입구에서 간부공무원들과 새로 조성한 시청 산책로를 4족 보행로봇 '비전60'과 함께 걸으며 앞으로 이룩해나갈 산업혁신을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었다. 산책에 동행했던 4족 보행로봇 '비전60'의 제조사는 로봇 전문 스타트업 업체인 고스트로보틱스(고스트로보틱스)이며, 미국의 4족 보행 로봇 개발사인 고스트로보틱스와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 내 로봇생산 권리 및 총판권을 확보했다. '비전60'은 현재 개발된 4족 보행 로봇 중 최상급 사양이며, 실외 상용화에 가장 근접해 미군 공군기지에 순찰용 로봇으로 실전 배치되는 등 경쟁사 대비 월등한 성능을 갖췄다. 고스트로보틱스(고스트로보틱스)는 9월부터 월 100대를 생산목표로 구미 공장에 제조 인프라를 구축중이며 생산능력을 점차 늘려 연 6,000대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국방부와 방산로봇 협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돼 활약이 기대된다. 산책로를 한바퀴 돌아 시청 로비로 들어온 김 시장은 자율주행 서빙로봇 '서비리프'의 축하를 받으며 집무실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서빙로봇이 사무실에서 수발해온 결재 서류를 김 시장에게 전달해 서류를 결재하는 모습이 비추졌다. 민선8기 2년차 1호 결재는 첫 투자협약 체결 계획 결재로, 1년만에 투자유치 3조

7,900억원 달성이라는 투자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투자유치 30조 시대를 향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서비리프'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베어로보틱스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구미 인탑스에 생산기지를 두고 로봇을 양산하고 있으며, KT, 맥도날드, 소프뱅크 등 굴지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확장해 차세대 유니콘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사람이 직접 하던 부서 간 서류전달 등의 업무 처리 과정을 베어로보틱스의 '서비리프'를 활용해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만들고자 7월 중에 자율주행 서빙로봇 시스템을 시청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로봇산업은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자 발표한 6대 국가 첨단산업 중의 하나로, 구미의 방산·반도체 산업과 협업·접목이 가능한 분야로 로봇 생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직업역량센터(구축사업),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 구축 사업 등 로봇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아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로봇산업 분야를 키워 지역 산업 성장의 추진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출근길 아침 로봇들과 함께한 것은 구미가 로봇산업의 제조기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라며,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미래발전 청사진 제시

3일 시청 앞천홀서 민선 8기 출범 1주년 맞아 언론인 간담회 개최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 미래발전 100년 앞당길 마중물인 2025 APEC 정상회의를 시·도민이 염원을 담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주 시장은 3일 시청 앞천홀에서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언론인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 1년간 핵심 성과로 2025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함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구축해 SMR 수출시장을 선점할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꼽았다. 또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 △신형산강 프로젝트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 등을 언급하며 역사문화도시 기반위에 미래 원전·자동차 중심의 새로운 경제지도 대변화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최고 이벤트인 대통령 임박과 폐지와 대통령 미디어아트를 비롯해 골목야시장인 '불금예찬', '중심상권 동행' 행사 등을 안내하며 도심에도 관광·경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나전교 우회로 차로 신설

△황오동 지하차도 평면화 개통 △동대교 지하차도 선형 개량공사 △황성동 주택가 공원묘지 정비(주차장 조성) 등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확행 사업의 성과도 덧붙였다. 이어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향후 시청 주요 청사진을 밝히며 미래를 주도할 여정사업을 소개했다. 주 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단순 회의를 한다거나 도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경제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격 상승과 국가자긍심을 고취하는 국제회의"라며 "지방화 시대를 국가 균형발전과 APEC의 포용적 성장 가치를 실현하는 지방도시인 경주가 개최해야 할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향후 경주만의 강점을 내세워 △경주유치 100만 서명운동 △정부와 대국민 등을 상대로 전방위 유치 세일즈 △민간주도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전개 등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에 전력투구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오랫동안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제공됐던 황성공원 재정비 그랜드

플랜을 설명했다. 전체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던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문화공원으로 변경해 종합운동장과 축구공원(1~4구장)을 이전(폐지)하고 지식정보센터, 커뮤니티 공간을 점목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계획을 안내했다. 다음으로 옛 경주역 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한국철도공사·국가발전공사 등의 협의를 포함한 사용·매입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현황(피해건수 754건,

복구액 2892억원)을 설명하고 재해 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 SMR 국가 산업 유치를 이어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도 반드시 유치해 세계 속의 경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행복만 바라보고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력투구 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경북도, 동해안백사장 토양오염도 검사기준치 모두 '만족'

청정 경북 깨끗한 동해안 해수욕장으로 놀러 오이소!

경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장을 앞둔 도내 해수욕장 백사장을 대상으로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해 4개 시군 지정해수욕장 25개소 백사장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 전 백사장에서 인체에 유해 중금속 성분인 납(Pb), 카드뮴(Cd), 수은(Hg), 비소(As), 6가크롬(Cr6+) 토양오염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를 시작한 이래 매년 경북 도내 해수욕장은 환경기준을 만족했고, 올해도 25곳의 백사장이 모두 환경기준에 '만족'했다.

백사장 토양 검사 결과 6가크롬(기준 5mg/kg)은 검출되지 않았고, 카드뮴(기준 4mg/kg)은 평균 0.002mg/kg 검출, 수은(기준 40mg/kg)은 평균 0.004mg/kg 검출, 납(기준 200 mg/kg)은 평균 8.07mg/kg 검출, 비소(기준 25mg/kg)는 평균 5.12mg/kg로 모든 해수욕장에서 미량 검출됐다.

이는 일반 토양 중 함유 가능한 자연환경 농도로, 경북도내 해수욕장 백사장의 안전이 과학적으로 확인돼 청정 경북의 깨끗한 백사장에서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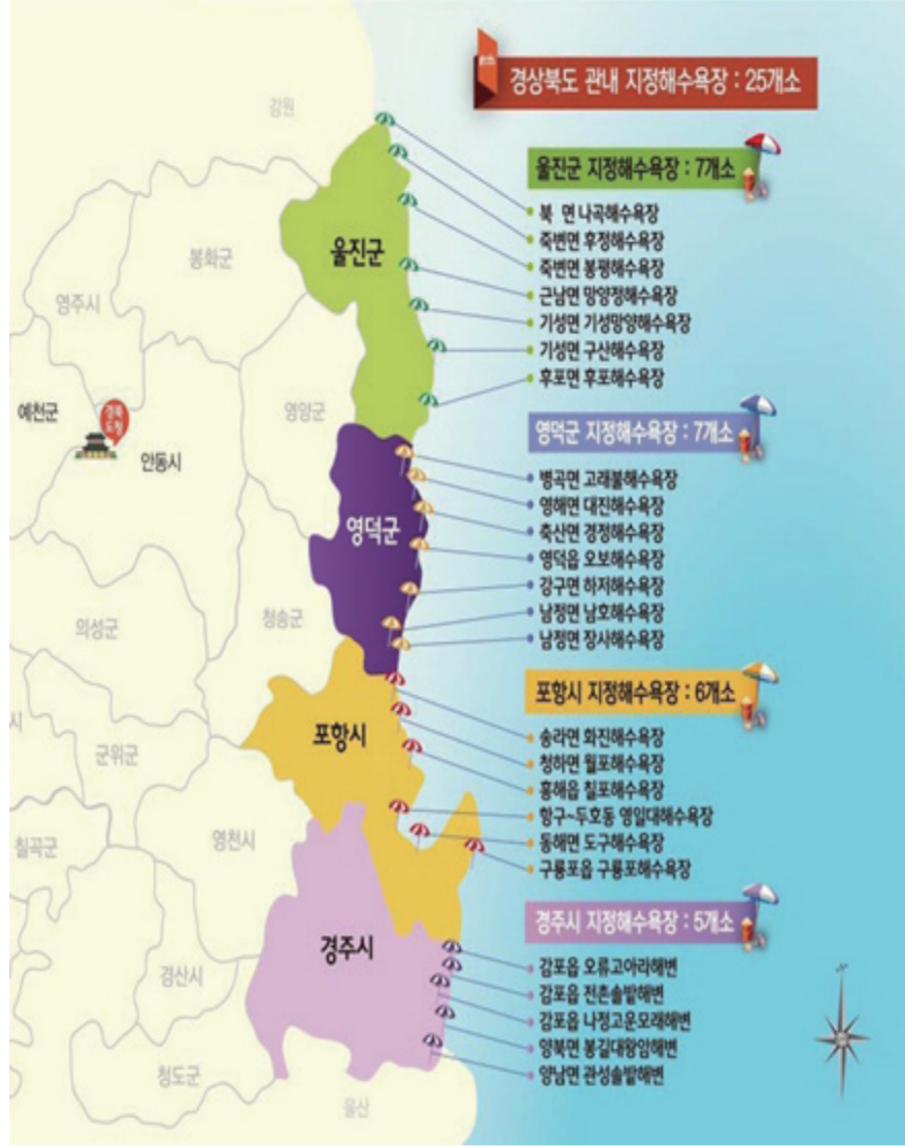
한편, 경북도 관내 지정해수욕장은

경주, 영덕, 울진이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은 7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한다.

또 피서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징어 맨손잡기, 조개잡이 체험, 해양스포츠투대회, 비치발리볼, 비치사커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있다.

이화성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검사결과를 시군에 제공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진구, 민선8기 1주년 맞아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 새로운 비전 선포

부산진구가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대신 열린 직원 정례조례에서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이라는 새로운 부산진구 비전을 선포하고, 구정 핵심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또 한 번의 도약과 변화를 꿈꾼다.

김영옥 구청장은 지난해부터 2023년을 '도시환경 개선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고, 거리 환경정비에서부터 일상의 안전, 도시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도시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도 부산진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올해 초 완료하고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발표하며, 도시를 정비하고 가꾸는 목표와 기준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에는 민선8기 1주년에 맞춰 그동안 꾸준히 강조했던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의 개선을 기반으로 주민의 건강까지 챙겨,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겠다는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 쾌적한 도시' 브랜드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정책은 두 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되며, 우선 '쾌적한 도시'는 보여주는 이미지가 청결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며, 조화로운 도시디자인을 통해 브랜드화 된 명품 도시를 추구한다.

'쾌적'은 환경적으로 깨끗한 도시의 의미만이 아닌 도로와 각종 공공시설물에까지 안전성과 심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내 집 앞 내가 즐기, 특색 있는 우리 동네 만들기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자발적 구민운동으로서 주민이 주도하는 것을 말한다.

필수적 건강 보장 및 증진, '건강한 구민'

'건강한 구민'은 주민 모두에게 평등한 건강 기본권을 보장하고 문화사업과 친환경 조성을 통해 치유와 힐링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한다.

구민이 여유롭고 편안한 일상 속에서 건강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건강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민 스스로도 생활체육을 즐기고 다양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주민 주도' 강조

부산진구는 '쾌적'과 '건강', 두 가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50여개의 실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정 역량을 총동원하게 되며, 사업의 성과와 확산,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민의 직접 참여와 주민 주도의 사업 운영을 유도한다.

김영옥 구청장은 부산진구의 새로운 구정 브랜드에 대해 "그동안 관 주도 추진되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고유성에 따라 마을을 변화시키는 등 사업을 주도해 나갈 것이며,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스스로 실천하는 등 '자발적 구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며, "새롭게 추진되는 부산진구 비전이 구정의 핵심가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진구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책 확산 분위기를 형성하고, 정책 로드맵에 따라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과제 발굴 등 목표를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다.

송중진/기자



자연보호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무태조야동 동화천 생태계 환경보호 활동 실시"

동화천의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다!

자연보호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는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동화천 하류에서 미꾸라지 방사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 생태계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수질 보존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자연보호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관계자 및 북구 자연보호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미꾸라지를 동화천 하류에 방사하고,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을 하루에 2000마리 이상 포식하며, 오염된 하천에도 적응력이 강해 10년 이상의 수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년간 자연친화적

방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영환 무태조야동장은 자연보호는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야 할 일이며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며, 궂은 날씨에도 환경보호 활동에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곳 동화천은 잉어와 누치, 버들치 등 민물고기들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보존이 꼭 필요한 곳으로 아침저녁 주민들이 걷기 운동으로 많이 찾는 힐링의 장소로 정착했다. 김동현/기자



산소카페 청송군 "청송군, 민선 8기 1주년 기념식 및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 3일 10시, 청송문화 예술 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경희 청송 군수 민선 8기 1주년 기념식에 이어 11시, 소 공연장에서 언론인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청송군민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윤경희 청송 군수 기념 사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윤경희 청송 군수는 기념사에서 "'청송군민들이 잘 사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면서 "희망을 찾아 부유한 나

라오 이민하듯 청송이 잘 살고 행복하면 외부인들이 청송을 찾아올 것이며 귀농, 귀촌 인도 늘어나고 청년들도 머무를 것이다"면서 "희망을 향한 청송군 도약에 함께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간담회는 최혜경 공보팀장의 사회로 개식사, 국민의례, 청송 군수 인사말씀, 민선 8기 1주년 군정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영상물 시청, 질의응답, 군수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주요 성과 및 추진방향을 별다른 발표 없이 영상물 시청으로 깔끔하게 준비해 한껏 돋보인 진행으로 눈길을 끌며 타 지자체가 반면교사로 삼아도 좋을 만큼 매우 잘 준비된 성과 보고였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지금까지 청송군은 어느 시. 군에 뒤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그래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일등 산소 카페 청

송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송군은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윤경희 군수가 있는 한 그 어떤 역경이 있어도 헤쳐 나갈 수 있어 최고의 산소 카페 청송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덧붙여 윤경희 군수는 "올해부터 청송사과는 절대 꼭지를 치지 않아 만약 꼭지를 친 사과라면 청송사과가 아니라 말을 꼭 전파해 달라"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북도, 제10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경연)성료

전북 대표 10개 생생마을 각양각색의 매력 선보여



전라북도는 지난 29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10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 농촌만들기 콘테스트의 지역 예선전 성격이자, 마을 주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자리다.

앞서 도는 시군 자체 평가를 통해 분야별 1개 마을씩 추천을 받았다. 또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1차적으로 마을만들기 분야 6개 마을과 농촌만들기 분야 4개 마을을 선정했다. 이어서 29일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제10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최종 심사결과 마을만들기 분야에서는 군산시 나포면 원나포마을, 진안군 백운면 원도창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촌만들기 분야에서는 진안 마령면 농촌중심지, 남원 대강면 농촌 중심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산 원나포마을은 아름다운 금강 자연경관, 주민들의 행복 만점 농촌마을 공동체 활동, 자전거길 특방 모정카페 운영 등이 돋보였다.

진안 원도창마을은 코로나 위기에 마을기금을 지급했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진안군 마령면은 마령활력센터를 거점으로 지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문화수준을 높이며 지역 민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지역의 재래종 작물을 활용한 밀 쿠키와 빵, 재래종 부엉

다리콩 두부 등도 만들어 농가소득향상은 물론 건강한 먹거리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남원 대강면은 대강 행복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주민 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체계적이고, 주민 주도의 센터 운영 환경도 조성했다.

분야별 최우수상을 수상한 4개 마을. 농촌은 9월에 개최되는 전국 행복 농촌마을만들기 전북대표로 출전해 타 시도 추천마을과 경쟁한다.

김준호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대회가 '생생마을'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체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화순군, 장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실시

화순군은 지난 5월 상담을 성황리에 마치고, 6월 28일에 다시 한번 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의 날'을 운영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맞물려 상인들의 세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화순군 통시장 상인회장의 열성적인 홍보와 협조 하에 상인회 사무실에서 마을세무사와 함께 세무 상담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이날 마을세무사를 처음 찾은 화순읍 이아무개 씨는 이세형 세무사의 친절함 설명으로 평소 궁금한 점이 해결되고, 절세의 방법까지 안내받았다고 상담에 만족했다.

한편, 화순군은 읍·면별로 담당 마을세무사를 지정하고, 군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며, 군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친숙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3명의 마을 세무사가 상담 대기 중이며, '찾아가는 세무 상담의 날' 외에도 누구나 전화 상담 등을 할 수 있다"라며, "마을 세무사 행정서비스 제공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라며,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실 것"을 부탁했다.

윤경호/기자



강진호 1년, 비상위한 재정비 마쳐

역동적 성과 위해 팀신설 및 인원 보강, 연공서열과 실력 두루 안배

강진군이 7월 1일 자로 2023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강진군은 이번 정기 인사는 연공서열과 실력을 두루 안배하되 군정 주요 업무 성과와 격무부서의 노고를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 전체 경력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민선 8기 2년차에 역동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화관광실에 푸소체험팀, 건설과에 산단조정팀을 신설하고 전략사업추진단 투자유치, 인구정책과 원소통 민원 총괄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전략사업추진단 융합성화팀과 총무과 SNS소통팀을 기획홍보실과 총무과 주민소통팀으로 업무를 이관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번 소규모 조직 개편은 통합 운영이 필요한 부서를 재정비하고, 독립적으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업무에 새팀을 꾸려 민선 8기 2년 차, 역점정책 사업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신설되는 '산단조정팀'은 지난 4월, 강진2산단조정 사업이 승인되면서 산단조정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며, '푸소팀'은 강진의 브랜드가 된 푸소체험 시즌2를 위해 농가역량강화 및 푸소협동조합의 운영지원 등을 도맡게 된다.

특히 실력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6급 팀장급과 7급 이하 직원 전보에 대해서도 군수와 실과소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개적으로 논의해, 전체 실과소장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한 투명인사라는 총평이다.

한편 이번 정기 인사는 승진 70명, 5급 이하 전보 141명, 파견복귀 5명,

전출 2명, 공로연수 8명, 명예퇴직 1명 등이다.

주요 승진 인사로는 ▲기획홍보실장에 오경원 총무과장이 ▲문화관광실장에 마국진 해양산림과장이 ▲해양산림과장에 오정숙 해양개발팀장이 ▲신전면장에 김경국 한우산업팀장이 승진 임용됐다.

이번 인사를 통해 649명이던 강진군의 현원은 퇴직 17명, 휴직 6명에 신규 2명과 휴직복직 10명으로, 인사 후 640명으로 11명이 줄어든다.

강진원 군수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있을 수 없지만, 객관적 성과와 함께 개인 특성을 반영해 본인의 실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구성원이 공감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했다"며 "민선 8기 비전 달성을 향해 본격적인 속도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효율적인 대일 정비로,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신강진 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취임 1주년 윤병태 나주시장 1일 '시민, 공직자에게 드리는 글'



취임 1년을 맞은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은 "나주 대전환을 기치로 숲 가꾼게 달려온 지난 1년은 삶의 질이 최고인 살기 좋은 행복 나주,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비전을 정립하는 시기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1일 '민선 8기 1주

"삶의 질 최고인 행복 나주, 으뜸 나주 향한 방향·비전 정립"

년 시민·공직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민선 8기 시정을 뜨겁게 응원해주고 누구보다 앞장서 참여해준 12만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취임 이후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확인했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며 "국비 예산 확보, 국가 정책을 나주의 사업으로 만들고자 어디든 누구라도 만나고 달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출범 1주년 주요 성과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통한 영산강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 개막, '에너지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나주배·나주쌀 등 농산물 국내·외 판로 확보', '혁신도시 정주여건 현안 합리적 대안 마련',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한 명품교육도시 인포준비', '경로당 입석테이블·의자 보급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책 발굴' 등을 소개했다.

윤 시장은 "나주평야를 적시며 나주

를 키워낸 영산강은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홍수 예방을 비롯한 강의 치수 기능 강화는 물론 강 저류지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국가산단인 에너지국가산단은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나주의 백년대계 구심점으로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SRF발전소·약취·상가공실 등 혁신도시 정주 현안에 대해서도 "이전의 갈등과 대립, 방치가 아닌 상생과 협력으로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마을 경로당 입석 테이블·의자 보급 추진", '치매 예방·극복을 위한 100세 안심 경로당(180곳) 지정 및 돌봄 관리자 파견', '만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 '보호자 긴급 상

황에 대비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출산 지원금 거주 조건 폐지·난임부부 시술 진단 검사비 지원', '출산 전후 모든 임신부 가사 돌봄 인력 파견' 등 민선 8기 신규 복지시책 성과도 내놓았다.

공직자들에게는 모든 정책의 최종 접점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난 1년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들이 나주에서 진로를 설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공감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행정 서비스에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시장은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나주의 비전과 정책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3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안/기자

전남도 완도수목원, 산림 역사문화 담긴 유물·기록물 공개 구입

민속자료·목재 예술품·문헌자료...17일까지 접수

전라남도완도수목원은 산림박물관의 전시·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 역사와 문화가 담긴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자료는 산림 및 완도지역과 관련한 민속자료, 황칠공예·목공예·화각공예 등 목재 예술품, 지도·고문서 등 문헌 자료 등으로 산림 역사와 문화가 담긴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이다.

유물 매도를 바라는 개인,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단체는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완도수목원에 방문해 오는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 유물은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하며, 도굴·도난품 등 불법 유물이나 출처와 소유가 불분명한 자료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물 선정 및 가격은 서류 심사와 유물평가위원회를 거쳐 결

정하며 매입 대상 유물은 불법문화재 여부 등 사전 검증을 거친 후 확정한다.

전남도 산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입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향후 산림 역사·문화 연구 및 특별전시 등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소장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완도수목원 JeollaNampo Wando Arboretum



김영환 충북도지사, 민선8기 2년차 '지역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로 출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민선8기 2년 차 첫 날을 지역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로 시작했다. 7월 1일 속리산 레이크힐호텔에서 개최된 토크콘서트는 스마트포럼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5월 까지 개최됐던 지역청년들과의 소통간담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8기 2년차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건의 및 질의 사항에 대한 정리 및 처리결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진 '김영환 지사-지역청년 토크콘서트'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다양한 질문에 답변해 나가며 평소 생각했던 철학과 도정의 운영방향을 청년들과 함께 공유했다.

특히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김 지사는 그동안 도정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충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충북만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인 '중심에 서다'를 새 이름으로 선정했고, 이는 충북의 정체성을 찾고 도민에게 자존감과 자긍심을 심어준 가장 보람되고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도정운영 1년 성과 공유 및 청년들의 목소리 청취

했다.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확정, K-바이오스퀘어 조성 정부계획 반영,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입법 노력 등 충북 미래의 100년 초석을 다졌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민선8기 1호 공약인 충북창업펀드 1천억원 조성은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펀드 조성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청년들이 꿈을 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계획이다. 우리 청년들도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고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해 달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강북구,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33년 구민숙원 결실'

30일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 발표



서울 강북구 북한산 주변지역 고도제한이 33년만에 완화돼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지역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서울시가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의 요지는 고도제한 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이 20m에서 28m까지, 정비사업시 최대 15층 즉 45m까지 추가로 완화됐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를 재 정비하고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90년 12월에 최초 지정됐다. 총 면적은 3.56km²이며, 이 중 67.3%인 2.39km²가 강북구에 위치한다.

구 고도지구는 삼양동·수유1동·우이동·인수동 등이다. 이 일대 건축물 높이는 5층, 18m 이하로 제한돼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66.4%다. 서울시 노후건축물 전체비율(49.5%)보다 16.9%나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10월엔 도봉구와 공동으로 서울시에 고도제한 필요성을 건의하고 11월 오세훈 시장과 면담해 강북구 고도제한의 불합리함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또 구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청원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고도지구 구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추진단'이 2개월간 서명 3만 3,806개를 모아 시에 전달하며 규제완화를 청원했다.

이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보면 강북구가 제안한 고도제한 규제완화 항목의 주요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순희 구청장은 "고도제한 구민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어 구민 '한(恨)'이 풀렸다"며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 서울시에 꾸준히 건의하며 소통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신강북선 유치에도 성공해 아이와 청년들도 살기좋은 강북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7월 6~20일 열람공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이상근 경남 고성군수, 국회 방문 현안 사업 건의

정점식 국회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이상근 고성군수와 정점식 국회의원은 6월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자리는 고성군에서 202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18일과 6월 16일 정점식 국회의원을 방문한 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마련됐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은 인구소멸지역인 고성군의 인구 유입과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2,000명 이상의 신규 근로자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주거지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29일 경남도를 통해 공모를 신청했다.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SK오션플랜트(주)에서 조성

하는 산업단지의 주 진입도로인 국도 77호선 골곡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늘어나게 돼 주민 안전을 챙기고자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한, 안정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도 33호선 시점 연장과 고성읍 신월리 신월IC에서 울대리 울대사거리까지 1.8km 도로 신설을 건의했다.

이상근 군수는 "지방소멸지역 해소와 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비확보와 지역현

원희룡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인 고성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업비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광용/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 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자매결연5주년' 충남도-쓰촨성 미래 협력 다짐

김태흠 지사,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 참석...“더욱 찬란한 발전 이루자”



올해로 자매결연 5주년을 맞은 충남도와 중국 쓰촨성이 앞으로 동반자적 미래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기로 다짐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청두시 금강호텔 흥빈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텐샹리 쓰촨성 정치협상회 주석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기념식에서 향후 환경보호, 스포츠, 문화, 교육, 투자통상, 유교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약속하며, 지금까지의 관계를 넘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는 대기, 수질(지하수 포함), 토양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학술 활동을 전개하며, 학술 세미나 초청, 공동 학술 연구 및 전문 분석 역량 향상 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는 환경 분야 협력을 위해 오는 10월 열리는 탈석탄국제컨퍼런스에 '언더2연합' 회원인 쓰촨성을 초청할 계획이다.

스포츠 분야는 다음 달부터 도와 쓰촨성 청두시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간 학술 및 인적교류에 나서고, 8월에는 쓰촨성에서 도내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배드민턴 경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지역 스포츠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각각 스포츠 우수 항목 위주로 정기적인 선수 및 코치 파견을 통해 교류하고, 스포츠 학술,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료와 선진경험을 공유한다.

문화 분야는 9-10월 열리는 2023 대백제전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쓰촨성 천극원 공연단이 대백제전 기간 중 변경, 불쇼 등을 선보이기로 했다.

투자통상은 올해 제19회 서부국제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도내 기업의 우수제품이 중국 서부지역과 유라시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유교 분야는 유교와 엠지(MZ)를 연계한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차세대 간 공감·공존의 협력동반자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

도와 쓰촨성은 8월 청년유교포럼 및 청소년유교캠프 교류를 추진하며, 도는 11월 열리는 충청권국제유교포럼에 쓰촨성을 초청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한서대와 쓰촨농업대학, 순천향대와 쓰촨대 금강학원이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쓰촨성과 자매결연은 5년이지만 우호교류는 15년 전 도지사인 고 이완구 총리가 물꼬를 텄고, 당시 제가 정무부지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의 감회가 더 새롭다”며 “국제 정세가 복잡해 지더라도 15년의 우정을 자랑하는 도와 쓰촨성이 미래를 향해서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념식 전 황치양 성장과 경제, 문화 분야 등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쓰촨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도에, 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쓰촨성에 나누자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각 분야에서의 협약은 도와 쓰촨성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실천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텐샹리 주석은 “양 지역은 교류 시작 이래 어려움 불착 시 가장 먼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호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쓰촨성은 협약을 체결한 충남 각계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을 체결했지만 한-중의 미래인 청소년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쓰촨성과 도의 청소년들이 더 많이 만나고, 교류해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나아가자”고 말했다.

다소 냉직돼 있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텐샹리 주석은 “지방교류는 한-중 관계의 중요

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쓰촨성과 충남은 상호 존중하고, 호혜평등을 토대로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는 만큼 앞으로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진정한 자매결연의 길을 갔으면 한다”며 “양 지역의 뛰어난 문화자원, 경제발전 경험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의 새로운 미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쓰촨성은 자매결연을 맺은 지는 올해로 5주년이 됐지만, 양 지역의 첫 인연은 200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지사였던 고 이완구 전 총리는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촨성을 방문해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구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양 지역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청두에 충남도 쓰촨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양 지역은 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도 교류를 지속했고, 2018년 인리 쓰촨성장이 도를 답방하면서 자매결연으로 교류 관계를 격상시켰다.

대지진 당시 도가 도움을 준 것을 잊지 않은 쓰촨성은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한국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에 마스크 1만개를 보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한편, 쓰촨성은 중국 남서부 양쯔강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49만 1147km²로 한국의 4.9배, 중국 전체 면적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2022년 기준 8374만명으로 중국 내 5위이고, 수도도시인 청두시의 상주인구는 2126만명이다.

주요산업은 전자정보, 장비제조, 식품·음료, 첨단소재, 에너지, 화학공업이며,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5조 6759억 위안, 1인당 소득은 6만 7777위안으로 집계됐다.

태백시,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준공식 가져..

태백시와 태백시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29일 황지동 115-80번지 일원에서 태백시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준공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2021년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체계구축 지원사업'으로 태백시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사업이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으로 사무실 신축공사를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자율방범대가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린다”라며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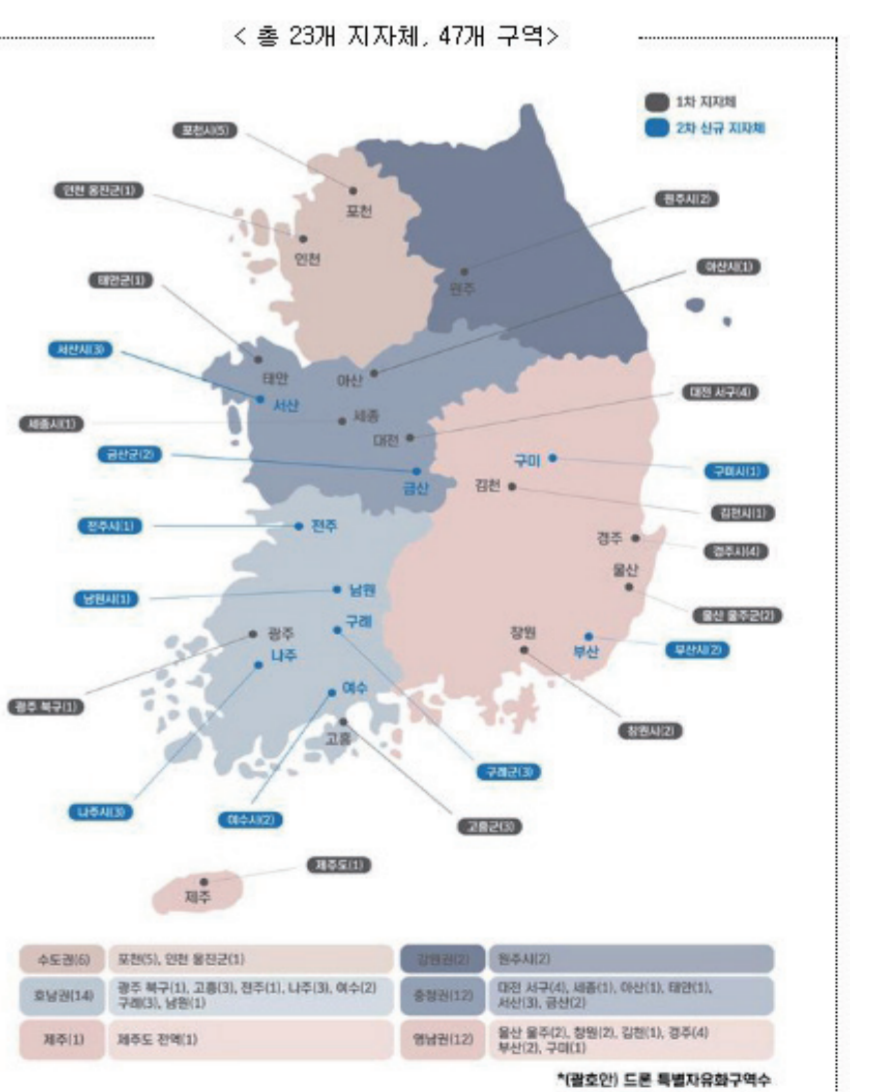
심우섭 태백시자율방범연합대장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방범대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가 더욱 개선되기를 바라며,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자율방범연합대를 포함하여 총 14개(대원 347명)의 자율방범대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2회 연속 선정...도내 유일

물류배송·산림·방역·제설 드론 실증비행 추진, 드론산업 육성 속도



원주시가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드론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제1차 지정에 이어 2회 연속 지정에 성공했다.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드론 특구에서는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문막읍 원주양궁장, 흥업면 매지저수지 등 2곳이다.

이에, 원주시 소재 드론 기업인 캣츠(대표 류재만)와 드론스타(대표 박동석)가 7월부터 2년간 물류배송·산림·방역·제설 드론 실증비행을 추진하게 된다.

원주시는 드론 실증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관내 우수한 드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 "신정호 '물의 정원' 콘셉트 구체화... 전국 최고 정원으로 조성"

30일, 신정호 지방정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안) 최종보고 개최

아산시가 지난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정호 지방정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안) 최종보고를 겸한 정원분과 포럼을 개최했다.

박경귀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최신현 (현)씨토포스 대표이사, 배준규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장, 김명희 산내식물원 대표, 이주영 국립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최홍식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김태현 (주)노블텔 대표와 선우문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아산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신정호 지방정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최종설계(안)은 세 갈래(수변정원길, 숲정원길, 주제정원길)의 주동선을 중심으로 환영정원, 사계절정원, 색깔정원, 개울정원, 다랭이정원, 호수를 담은 호수노을 언덕정원, 마른정원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었다.

특별히 주변 카페에서 정원으로 이동하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진출입 동선, 정원별 명확한 동선 및 이야기가 있는 섬세한 공간계획이 눈길을 끌었다.

세부적으로 △향후 지방정원 관리를 위한 예비식물을 재배하는 기능이 있는 다랭이정원 △호수를 담은 뷰를 감상하고 상시 야외 공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호수노을언덕정원 △스물경축을 확보한 캐스캐이드 형태가 도입된 물의정원 및 환영정원의 벽천 △색깔정원의 습지 연못

△개울정원의 생태연못 △언덕정원 옆 생태계류 등 물 테마 요소가 곳곳에 반영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는 신정호 지방정원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더욱 구체화했다.

전문가들은 기 조성된 공간과 새로 조성될 공간 사이의 이질감 극복 방안과 주변 카페들을 정원의 요소로 어떻게 끌어 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향후 정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현재 식재 계획 및 공간 계획이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날카로운 의견과 함께, 양묘장과 방문자 센터와 같은 배후시설 도입의 필요성 등 현장 경험이 녹아나는 섬세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박경귀 시장은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포럼을 마치고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신정호 문화예술융합형 국가정원 탄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늘 포럼은 신정호 지방정원의 '물의 정원' 콘셉트를 구체화하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명과 자부심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면서 “신정호가 전국 최고의 정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탄없는 의견 제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정원분과 포럼 계속 개최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2024년 충남1호 지방정원 조성, 2030년 제3호 국가정원 등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후 준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비, 각 계 의견수렴 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 발표가 당초 상반기에서 7월 중순경까지 연기되면서 지자체 간 해당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특화단지 지정 '유력', '청신호', '최적지' 등의 메시지 답아 뒤늦은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정치권도 특화단지 유치전에 합세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2009년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에서 세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공급하면서 대한민국 배터리 역사의 시작을 알렸듯 특화단지 지정과 동시에 미래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한발 앞서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차전지 1등 지자체로서 2021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이차전지 소부장 산업의 집적과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마더팩토리와 에코프로의 R&D캠퍼스가 구축 중으로 기업 주도로 R&D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연구진으로 배터리 등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를 유치해 충북테크노파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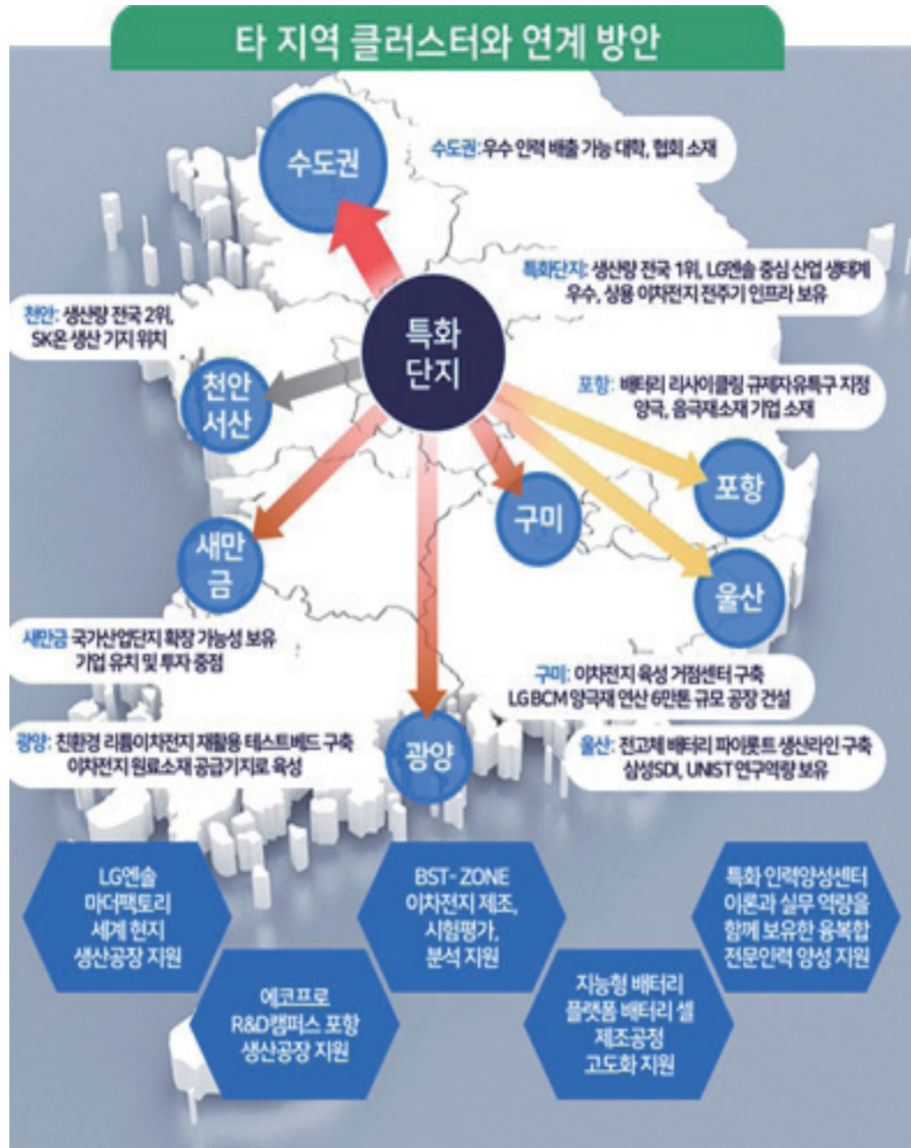
소재·부품-셀-모듈-팩-응용제품으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제조·시험평가·분석 클러스터로 성장 중이다.

그러나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오창도 아쉬움이 있다는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다 심층적으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충북도는 이미 국내 최대 셀 생산지인 충북(오창)을 중심으로 원재료 및 소재 생산 거점인 새만금, 광양, 포항, 울산 등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글로벌 완결형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계획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수렴되는 각 계의 의견은 특화단지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신속한 계획 실현을 위한 충북도의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서 충북도의 배려는 있을 수 없다"며 "배터리 글로벌 경쟁에서 충북도의 첨병 역할은 계속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정화/기자



강원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 종료 이후 특별자치시도간 협력 방향 및 지방분권 과제 등을 주제로 지방시대 정책포럼 개최

7.3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원을 포함한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4개 특별자치시도는 3차례의 상생협력 실무협회를 통해 상생협력 의제와 향후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해 왔고, 지난 6월 강원에서 국장급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4대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2차 개정)을 지난 5월 25일 국회에 통과시키며, 6월 11일 성공리에 출범했으며, 강원의 비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주민체감적인 특례를 발굴·법제화하는 3차 개정안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만의 노력보다는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는 4개 특별자치시도가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번 협약 추진의 배경으로 보여진다.

강원은 나머지 3개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협력과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공동 모색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 추진할 예정이며, 국·과장급 회의를 정례화하여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협약식 종료 이후 진행되는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 실행방안과 지방시대 추진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주대학교 인기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인하대학교 이기우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은 김종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장(강원도인일보 회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국무조정실 권오정 제주지원과장, 행정안전부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경제정책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강원인대전세종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박재을 지방분권국회의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 출범했지만 이제 또 다른 시작이며, 앞으로 3차, 4차 개정을 준비하는 데에도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명/기자

과기정통부,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구 역삼동)에서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 재미한인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한인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과학기술인과 교류 및 연구성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행사에는 한국 여성 최초 미국 스탠포드대학 의과대학과 전자공학과 출신 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교수를 비롯하여 노벨상 수상자인 배리 배리시(Barry Barish), 콘스탄틴 노보셀로프(Konstantin Novoselov) 등

300여 명의 해외 과학기술인과 700여 명의 국내 과학기술인이 함께 참여하며,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협력망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 혁신의 방향을 탐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7월 4일 오후 환영연을 시작으로 총 4일간 개최되며, 강연과 학술분과 운영, 사이언스 토크콘서트, 한인 석학과의 대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개막식에는 국내·외 한인과학기술자, 해외석학, 정부·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세계 속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발자취 및 성과를 공유하며, 본격적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본 행사가 열리는 3일 간(수~금)은 모두 세계적 석학의 기초강연을 시작

된다. 7월 5일에는 콘스탄틴 노보셀로프가 "미래의 소재"에 대하여, 7월 6일에는 배리 배리시가 "우주를 보는 새로운 창, 중력파"에 대하여 강연하며, 마지막 날인 7월 7일에는 테트리스 회사 설립자로 유명한 헝크 로저스가 "화석연료 이후의 미래 청정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

또한, "2030년 지속가능성의 전진: 최첨단 기술과 과학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사이언스 토크콘서트에는 케이지 킹스칼리지런던 교수, 김영기 시카고대 교수, 조남준 난양공대 교수, 김기환 칭화대 교수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석학들을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분야를 바탕으로 전 세계

를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이외의 부대행사로 국내·외 연구자가 전략기술 및 기초 분야의 최신연구 및 동향 등을 안내하는 기술별 학술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내외 기관 및 과학기술인들 간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한인 석학과 차세대 과학기술인의 대화, 세계 한인 스타트업 관계자 및 벤처캐피탈들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포럼 등 차세대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출입 및 관람은 사전 등록 또는 현장 등록 후 가능하다. 행사별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정화/기자



경북교육청, 학교 구성원 간 갈등해결과 관계 회복! 전문가가 나선다

2023학년도 관계 회복 생활교육 선도지원단 심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관계 회복 생활교육 선도지원단 역량 함양을 위한 심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계 회복 생활교육 선도지원단'은 학교 구성원 간 다양한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과 함께 관계 회복 생활교육 컨설팅,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학생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가해 학생을 바로잡는 것'에서 '자발적 책임을 통해 피해를 회복시켜 관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선도지원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연수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생활교육 전문교육 훈련기관인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을 전문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회복적 학교 문화 만들기'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생지도에 있어 엄벌주의가 갖는 문제점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의 적용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접근 △회복적 정의 적용 사례 및

실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의 실습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공간으로 언제나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중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선도지원단이 중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전남교육청, 탈북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지원

이북5도 전남사무소 등과 협력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북5도위원회 전라남도사무소 등과 협력해 탈북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지원에 나섰다.

전남교육청과 이북5도위원회 전남사무소는 7월 1일과 2일 이틀 간 경남 창원과 부산광역시를 방문하는 '2023. 탈북학생교육지원 진로탐색 현장체험 학습'을 운영했다.

이번 현장 체험학습에는 전남에 거주하는 북한 배경 학생 20여 명과 학부모 25명, 이북5도 관계자 4명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경남 창원(마산)의 로봇랜드를 방문해 미래 AI 진로를 탐색했고, 부산 임시수도기념관과 재한유엔기념공원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세계시민문화교육 강사의 평화통일 특강을 통해 통일의 현주소와 미래 통일 과제를 토론하고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현장체험은 전남교육청, 이북5도 전남사무소 및 전남하나센터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해 향후 상호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듣는다.

도교육청은 탈북학생의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진로탐색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한편, 담임교사와 학생의 1:1 맞춤형 멘토링,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 김한기 소장은 "지난 3월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성사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로 무사히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탈북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금상1, 은상2, 동상3, 장려상4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발표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는 총 16건이 접수됐다. 실무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의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금상1건, 은상2건, 동상3건, 장려상4건 등 10건의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금상은 시교육청 재정과 나호상 주무관이 '유치원급식, 이젠 안심하세요! 전국최초!! 전문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유아급식 사각지대 해소!'로 수상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약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사립유치원 전체에 급식 관리, 지원을 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 2건은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허승남 주무관과 시설과 박현수 주무관이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줄이는! '광산고 신설' 눈에 띄네'와 '내 집같이 안락한 '학교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추진'으로 각각 받았다.

동상 3건은 '학생은 행복, 학부모는 안심'하는 광주형 초등돌봄교실 대거수요

제로화 추진, 전국최초!! 학교안 학생 눈높이 공부방 365-스터디룸 조성, 지역협력을 통한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취업동아리' 등이 운영 사례로 선정됐다.

금, 은, 동상을 받은 직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표창 및 부상금과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우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내 학교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위해 머리 맞댄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의 통합·체계적 지원 위한 연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의 통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장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학교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총 8회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된다.

연수에서는 교육복지정책 방향 안내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이해를 주제로 서울 방화초 신연옥 교장, 제주 정서복지와 김지혜 과장, 광주 만호초 박상철 교사가 강의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분절적 지원되던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학생 맞춤형으로 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3개 선도학교와 3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해 확산한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의 어려움을 교사 또는 학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모든 복지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개막! 11일간 울려 퍼질 평화의 하모니

국내외 8,000여 명 합창단 및 방문객들로 축제 열기가 가득

세대와 성별, 국경을 뛰어넘어 커다란 감동을 선사할 전 세계 최대규모 세계합창대회(World Choir Games)가 3일 저녁 7시 30분 강릉아레나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7천여 명의 관객과 함께할 개막식은 오프닝 세레모니에 이어 참가국 입장, 공식 주제가 제창 및 타중 퍼포먼스에 이어 '평화의 하모니'를 전하는 주제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합창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로 개막식 공연은 전석 매진됐으며, 티켓 현장 수령 시 입장료는 강원상품권으로 100% 전액 환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는 국내외 합창단과 방문객들로 강릉 일대는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로 가득하다.

지난 1일 초청팀인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합창단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여 깊은 감동을 전했으며, 이날 오후 11시쯤 필리핀 합창단 Capiz State University Main Chorale (카피즈 주립대 합창단)이 참가팀 중에서 처음으로 입국하여 눈길을 끌었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개최되는 11일간, 강릉아레나 및 강릉아트센터는 물론 지역 명소에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총 5회에 걸

쳐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축하콘서트'가 개최되어 관객들에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화) 강릉시립합창단의 무반주 한국 합창음악, 가곡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7일(금) 강원도립무용단의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을 여행하자는 취지가 담긴 '강원 춤 여행', 10일(월) 한글의 우수성과 예술을 합창으로 담아낸 국립합창단의 창작합창서사시 훈민정음 기획공연이 펼쳐진다.

5일과 11일에는 합창대회 해외 참가팀의 특별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번 합창대회를 위해 특별히 초대한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 합창단(Girls Choir "Vognyk")의 공연은 5일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대회 기간동안 경연과 관계없이 율화거리, 경포해변중앙광장 등에서 다른 합창단과 함께 즐기며 전 세계인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버스킹 공연인 우정콘서트가 개최된다.

폐막식 공연 티켓은 3일까지 예스24에서 예매 가능하며 경연-시상식-우정콘서트는 현장에서 선착순 무료관람할 수 있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7월 3일부터 13일까지 강릉아레나, 강릉아트센터 등에서 열리며 34개국 323팀의 8,000여 명이 참가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등원/기자

경기도 배달특급, 국제영화제 소비자 만나 '상생' 가치 알렸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에서 현장 홍보 활동 진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사흘간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소비자들을 만났다.

배달특급은 국제영화제에서 현장에서 신규 회원을 유치하고, 소비자에게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배달특급의 가치를

홍보했다. 배달특급 부스를 찾은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해보는 한편, 기존회원들은 배달특급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부터 신규 회원 확보와 불편사항 접수를 위해 각 지자체 축제 및 유명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펼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와 부천만화축제 등 대형 지역 행사와 더불어 각 지역 전통시장 축제 등 총 21개 행사에서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올해는 약 30개 지역 행사에서 현장 홍보를 펼치고 소비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배달특급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 곳곳에서 도민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단양군, 제17회 단양마늘축제 오는 21일 개막!

관광 1번지로 소문난 단양군이 오는 21~23일까지 3일간 단양생태체육공원에서 단양마늘축제를 개최한다.

단양마늘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농협 단양군지부·단양마늘생산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7회 단양마늘축제'는 2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치러진다.

정부는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열린 이번 축제는 단양의 대표적인 행사로 먹을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행사다.

올해 축제는 첫날인 21일 지역 가수들의 열창과 패러글라이딩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서막을 올린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마늘 생산 및 일손돕기에 노력한 농업인, 주민에게 군수 표창을 시상할 예정이고 개막식 축하공연은 '거짓말, 사랑찾아 인생찾아'의 가수 조항조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22일엔 오후 3시부터 트로트 메들리 음악 공연으로 신명난 분위기를 띄우며 첫날의 흥겨웠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다.

이어 마늘 관련 즉석 이벤트, 밴드공

연, 플라이보드 시연은 한여름의 더위도 잊어버릴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화려한 댄스 음악과 참여 농가들의 친숙하면서도 신바람 나는 노래자랑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행사 기간 내내 축제장 일원에서는 관내 50여 농가가 참여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국내 마늘 신품종 및 가공품 비교전시, 마늘치킨 판매존 등도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 준비된 단양 마늘은 총 50톤 규모로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단양군수가 인증하는 단양마늘 생산인증제를 통해 단양마늘과 단양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 29호인 단양마늘은 한지형 마늘로 단단하고 저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단양 마늘은 올해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년 제14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장소브랜드 중 마늘부문 '단고'를 단양마늘'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면역력 증강 식품으로 이름난 단양 마늘은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로 인해 주목 받고 있다"면서 "이번 축제를 계기로 단양마늘이 '국민 마늘'이 되도록 우수한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의 마늘 재배면적은 272.1ha로 전년 대비 1.8ha 증가했고 비도 적게 자주 내렸으며 벌마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아 수확량은 3,234여 톤의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만식/기자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The 12th World Choir Games - Gangneung 2023
7. 3.(월) ~ 7. 13.(목)
강릉아레나, 강릉아트센터 등

개막식 | 7.3.(월) 19:30 강릉아레나
규현, 거미, 고영열, 이동규, 박해상 등이 세계 합창인의 꿈에하는 축하공연
+무대연사: 불꽃놀이

폐막식 | 7.13.(목) 19:30 강릉아레나
김범수, 김수인, 김순영 등과 세계 4,000명의 합창단이 함께하는 대합창

당진시, 템플스테이 원 투어 '본격 시작'



당진시가 7월부터 관내 유일한 템플스테이 사찰인 영랑사를 중심으로 '2023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는 사찰에서 산사 및 전통문화 체험과 당진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연계하는 1박 2일 투어로 단순히 사찰에서의 체험만을 하는 기존 템플스테이와는 차별화된다.

시는 지난 4월 2023 기지시출다리기 민속축제 기간 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7월부터는 합덕제 문화재야행을 비롯한 관광축제행사 및 면천읍성, 삽교호 관광지, 필경사, 왜목마을 해수욕장, 삼선산수목원 등 지역 내 문화관광명소를 연계할 계획이다.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는 1박 2일 코스로 총 10회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 방법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영랑사를 검색해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를 신청하거나 영랑사로 문의하면 된

다. 이종우 당진시 문화관광과장은 "영랑사는 관내 유일한 템플스테이 사찰로 힐링을 위해 많은 분이 찾고 있는 당진 대표 사찰"이라며 "당진 관광지와 연계한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를 통해 사찰의 아름다움은 물론 당진 관광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크게 중수하면서 사찰의 면모를 갖춘 사찰로 알려진 당진 영랑사는 고대면 진관리 영파산에 위치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금호워터폴리스

-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 관광숙박시설용지 공급 중

안심뉴타운

-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분양문의 053) **350-0300**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록 지구를 위한 로봇 디자인...영등포구, 'YDP해커톤 경진대회' 개최

스파이크 프라임 활용한 그룹 프로젝트 수행...우수 3팀 시상

영등포구가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이끌어내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2023 YDP 해커톤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 한정된 시간 내에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커톤 경진대회는 7월 22일~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복합단지 내 ECC 극장에서 열린다. 참여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5~6학년)와 중·고등학교(1~3학년) 100명이다.

주제는 '초록 지구를 위한 우리들만의 로봇 디자인'이며, 초·중·고·대학생 총 10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들은 스파이크 프라임을 활용해 로봇을 만들고 기후변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룹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로봇을 완성한 후에는 그룹별로 프로젝트 발표 시간을 갖고 우수 3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회 첫째 날에는 장지영 한성대학교 교수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 인공지능 로봇 세상'을 주제로 특강을 펼쳐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통합예약 → 평생교육 → 융합인재교육 페이지에서 7월 7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1만 원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장, 지역아동센터 기관장 등의 추천도 진행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참가비가 면제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래교육과 및 융합인재교육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미래 과학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블록체인이 가져온 행정의 스마트한 변화... 참! 착한 서초코인

디지털이 일상이 되고 선한 활동이 보람의 지표가 되는 '착한 서초코인' 시행

서울 서초구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고립,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착한 서초코인' 사업을 이달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착한 서초코인'은 서초구청장이 발행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선한 가치'를 주고 받는 일종의 선한 활동에 대한 보람의 지표이다.

서초구는 이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사회적 약자 보호, 재능기부 등에 착한 서초코인을 부여해 생활 속 작은 실천과 행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선한 가치를 전파한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한다.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동네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여 보호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람의 지표이자 매개체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있는 활동을 할 때마다 '착한 서초코인'을 적립할 수 있다.

선한 가치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착한 서초코인'을 매개체로 선한 영향력이 1코인씩 쌓이고, 선한 활동이 주민들의 생활에 스며드는 작은 실천으로써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 서초가 그려나갈 미래의 모습이다.

우선 '서초 탄소제로샵' 참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탄소제로샵에 전달하고 사용토록 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한다.

현재 서초구 내 카페, 세탁소, 정육점 등 약 300개소의 탄소제로샵이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가게에 종이쇼핑백, 옷걸이, 아이스팩 등의 물품을 가져다주는 주민과 상점주는 코인을 적립할 수 있다. '투명페트병' 수거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투명페트병 수거에 참여함으로써 코인을 적립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탄소제로샵으로 지정되어 있는 세탁소에 깨끗한 옷걸이 10개를 가져다 주면 1코인을 적립할 수 있고, 노인종합복

지관, 느티나무심어, 여성가족플라자에 투명페트병 10개를 가져다 주는 경우에도 1코인을 적립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식과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에도 '착한 서초코인'을 적립할 수 있다. 교육, 강연, 멘토링, 공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능 기부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수요자들을 매칭시켜 선한 영향력 확산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전문사진 촬영기술과 이-미용 재능을 갖고있는 재능 기부자들이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건강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타공연이 가능한 재능 기부자들도 복지관 등에서 공연하는 경우 1시간 활동 시 1코인을 적립받을 수 있다.

적립된 코인은 1코인당 100원으로 환산하며 자치회관, 서초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좌 수강료 또는 시설이용료(예: 복지관식당) 결제시 사용하거나, 서초 탄소제로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 시 기부할 수도 있다.

'착한 서초코인'의 가치는 환경보호, 약자 보호,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람의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선한 활동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착한 서초코인을 최대로 적립한 주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착한 서초코인'은 당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시작했으나 사회 전반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자 지난 달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착한 서초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환경, 복지 등 사회적 문제에 주민이 참여하는 서초형 스마트도시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적용 영역을 확대해 서초구민들이 선한 가치를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선순환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개관 20주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메타버스 인증 이벤트

2003년 7월 개관, 2022년 12월 메타버스 박물관 개관

서대문구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이달 18일까지 '메타버스 박물관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일 밝혔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계획하고 설립한 자연사박물관으로 2003년 7월 10일 개관했다.

'메타버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역시 지난해 12월 14일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기술과 AI 기술을 융합해 선보인 온

라인 전시 서비스다.

PC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시간 제약 없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AI 휴먼 도슨트(전시해설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4D 변환 기술을 활용한 박물관 체험도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메타버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비스를 이용한 뒤, 촬영한 메타버스 화면과 해시태그(#메타버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를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리면 된다.

이벤트 기간 중 박물관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개인 SNS를 보여주면 박물관이 제작한 머그잔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매일 선착순 일정 수량(평일 5개, 주말 10개)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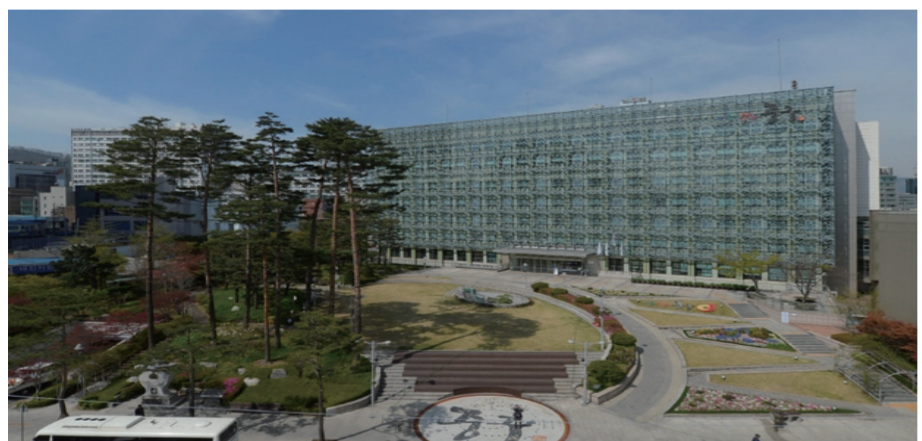
이남숙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은 "이번 인증 이벤트가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 메타버스 전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울 중구 북창동 거리에 '미디어 월(Media Wall)' 조성

중구 세종대로 78~84 대로변, 20~50m 규모로 설치



미디어 파사드로 크리스마스 명소가 된 백화점, 대한민국의 역사박물관 외벽을 장식한 초대형 미디어 월,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고급 식당까지. 몇 년 새 미디어 아트는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예술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북창동에 미디어 아트로 품격이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 중구는 북창동 음식거리에 '미디어 월'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디어 월은 예술영상을 상영하도

록 벽면을 스크린으로 가득 채운 구조를 말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어 최근 백화점, 대형빌딩, 박물관 등에 설치되고 있다.

설치 장소는 중구 세종대로 78~84 대로변이며, 규모는 20m~50m 내외다. 구는 북창동 음식거리에 미디어 월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북창동을 찾는 인근 직장인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구는 6월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11월 준공 후, 연말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미디어 월이 설치되면 북창동과 중구의 정체성을 담은 영상과 시선별 테마 예술영상 등을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창동 먹자골목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거리로 송례문, 덕수궁, 시청광장 등과 접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곳이다. 그러나 그간 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설물이나 디자인적 요소가 부족해 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해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 중구에서는 도시 디자인이 곧 경쟁력"이라며 "경관 개선 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구도심을 벗어나, 보다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송파구, 6~10세 취약계층 아동 안과검진 지원

송파구가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눈 건강 관리를 돕고자 안과 검진 및 안과 치료를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아동의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눈 건강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번 지원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원에 앞서 구는 지난 6월 21일 첫눈애안과와 '우리아이(EYE)' 후원식을 가졌다.

구는 올해 말까지 관내 취약계층 아동과 보

호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력 발달 과정에서 성인의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인 6~10세 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시력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자발적인 눈 건강 관리 중요성을 알리고자 안과 체험을 병행한다. 눈의 구조와 기능 공부, 검사실 및 수술실 견학, 안과 의사 체험 등을 다채롭게 진행하여 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올바른 건강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이흥수/기자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빠지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배굴원, 죽백수림,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립박물관보물고굴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지선,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이생화전시관

